

2008 농활여성주체 백서

- 여성주의적 농활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자세 -

- 농여보관용 -

여성주 의적 농활을 준비하는 바람직 한 자세

...를 고민하는 우리들

중앙 유나 / 문대 주현
/ 상대 쌀도독 / 이과대
오리 / 공대 거울 / 신
대 하영 / 사회대 준영

들어가며. 2008 여성주체백서를 펴낸다는 것	 2p
1. 2008년 농활 여성주체 활동 평가	
1.1 중앙 준비와 수행과정	 3p
1.2 문대 단위(각반, 동아리)여성주체가 세워지고, 단과대 농주체와 여성주체가 분리된 상황에서	 5p
1.3 이과대 단위여성주체가 세워지지 않았고, 단과대 농주체와 여성주체가 분리된 상황에서	 7p
1.4 공대 농활준비가 전반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8p
2. 여성주체의 역할과 고민, 그리고 문제제기	
2.1 중앙-단대-단위별 여성주체의 구체적 역할	10p
2.2 나이와 학년, 성별에 대한 고민	13p
↳ 큰형님이야기	
↳ 성별과 권력	
↳ 게이 농활가다	
2.3 문제제기	17p
3. 분반활동	19p
4. 실제사건처리과정	20p
↳ 성폭력 사건처리의 중요성	
↳ 연산면비대위글	
5. 별별팁들	24p
5.1 농민분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5.2 농활에서의 공간문제에 대하여	
5.3 빨래하기	
5.4 작업분배는 어떻게?	
5.5 술자리에서	
5.6 마을잔치에서는?	
5.7 하루평가는 어떻게?	
5.8 샤워하기	
6. 같이 고민해 볼 문제들	33p
↳ 꼭 여성주체가 있어야 하나	
부록1 2008 여름농활 문대 여성주체 평가 회의록	
첨부2 독사반 여성주의 교양자료	
첨부3 2007년 연산면농활성폭력사건일지	

2008 여성주체 백서를 펴낸다는 것

유나

2008년 겨울, 확대간부수련회에서 농민학생연대활동 준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단과대 여성주체들이 얼추 모이는데까지는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2008년 농활 여성주체를 알기 전에 반에서만 여성주체로 농활을 2년 다녀왔습니다. 2008년 농활 여성주체 분들 중에는 농활을 이미 경험한 분도, 2008년이 처음인 분도 있었습니다. 단과대마다 농활 상황은 천차만별이

였고 서로 학번도 다르고 경험도 달랐지만, 2008년 성평등한 농활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은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여성주체는 남모르는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성평등, 여성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모두 여성주체 '만의' 책임이 되기 일쑤입니다. 듣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넘치는데 같은 농활대원들은 작업에 지친 것만 같고, 귀찮아 할 것 같습니다. 여성주의에 대한 온갖 편견어린 논쟁을 혼자 마주하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10일이 넘는 동안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살아왔던 친구들이 같이 산다는 것의 긴장감이 여성주체에게는 배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 이유로 여성주체를 하기로 하고 나름의 목표를 잡고 즐겁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여성주체들이 만들고 싶었던 농민학생연대활동의 모습과, 그 모습을 함께 만들기 위해 했던 노력들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지금도 계속되는 고민들을 부족하게나마 남겨봅니다. 다들 워낙 바쁘시고(?) 게을러서(!) 1년 사업이 되어버린 2008년 여성주체 백서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오는 게 어딘가 싶습니다.

백서를 핑계로 농활이 끝나고서도 간간히 얼굴 보고 고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을 우리 여성주체들의 작은 흔적이 앞으로 농활을 진행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주체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 내가 왜 농활을 가기로 했는지, 내가 왜 여성주체를 맡기로 했는지 다시 떠올리면서 힘 받고 지내세요!

그리고 우리, 고민 많고 말랑말랑한 가슴 가진 여성주체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힘을 줘시다!

초치, 화잇팅 ☺

1. 2008년 농활 여성주체 활동 평가

2008년 여성주체로 여름농활을 다녀온 이들의 고민과 활동, 그리고 평가입니다. 여성주체를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단과대별로 농주체와 여성주체가 따로 세워져있느냐, 그리고 각 단위(과,반,동아리)에 각각의 여성주체가 있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모두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풀어보았습니다. 단위별로 여성주체가 세워졌던 문대의 여성주체 평가회의록을 책자의 맨 뒤에 첨부자료로 실어놓았습니다. 단과대별로 여성주체 회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1.1) 2008 중앙 여성주체 활동 평가

유나

중앙 여성주체를 하기로 결심하고 진행하면서 여성주체들과, 농주체들과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과 시도들은 백서에 대부분 담겨있는데니 찝찝한 평가입니다.

준비과정:

농주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친한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농주체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준비과정에서부터 중앙 농주체와 여성주체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2008년도의 저학처럼(?) 처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을 듯 합니다. 같이 열심히 만나고 고민 나누고 논쟁하고 하다보면 신뢰가 쌓이니까요.

여성주체는 아무리 빨라도 5월 말에야 세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니, 단과대 농주체들과 단위 농주체들과 자주 만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주체만큼 빨리 열의있는 여성주체분들이 나타날까요? 단과대 여성주체 회의 및 교양에서 토론형식으로 작게 팀을 나눠서 논의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자료집:

있는 글은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들의

언어로 쉽게 쓰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단과대 주체들이 늦게 세워지다보니 아무래도 자료집의 여성주의/성평등 부분은 중앙여성주체 혼자 하게 됩니다. 역량만 된다면! 단과대 농주체님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료집의 양이 너무 많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 자료집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제대로 공유만 한다면 필요한 내용은 전부 들어가야한다고 농활 끝나고 여성주체들이 서로 평가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 자료집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사전에 공유되면 제일 굳!

성인지간담회: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평가였습니다. 학교 성평등 상담실 선생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하셨는데, 농활 경험도 있으시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별로 논의했었어요. 예를 들면, '농활에서 엄마곰아빠곰 애기곰 노래를 함께 부렀는데, 엄마곰이 예쁘고 아빠곰이 멋지다라는 건 일상에서의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성, 남성성을 반영하고 있는 노래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주체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등등. 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주체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등등. 농활 때 토론했던 주제들과 토론방식을 단위에서 준비하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성주체분들이 열의있게 참여해주시고, 단과대 여성주체님들이 활발하게 홍보해주셔서 단위별로 꽤 많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주체들도 함께 하자는 의견이 참 많았어요!

농활 수행중:

제일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여성주체들이 농주체들이 하는 것처럼 중간평가를 진행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중간평가를 강행하기보다 매일 밤마다 단과대 여성주체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공유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끝나고 나서야 생각이 났어요. 농활 수행 기간 중 중앙여성주체는 중앙의 일들은 전반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여성주체' 역할에 조금은 소홀해질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단과대에 연락하고, 단과대 여성주체분들은 단위에 연락해서 하루하루 평가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008년 농활을 수행하면서 '농민가' 및 성평등/여성주의와 관련하여 농민회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앙여성주체로서 논의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그 논의결과를 여러 이유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중앙차원에서 논의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위에 공유하지도 않았었지요. 후회와 반성중입니다. 여성주체로서 성평등/여성주의와 관련한 논쟁이 있을 경우 그런 사례와 경험을 최대한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번 농활 때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 단의 여성주체가 세워지고, 농주체와 여성주체가 분리되어있는 상황에서의 준비과정 및 수행과정평가

주현

처음에 단과대 여성주체를 맡으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막연히 여성주체라는 역할에 부담감을 느꼈다. 여성주체를 맡으면 우선적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활에서 여성주의를 끌어내기 위한 실천의 과제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여성주의 세미나 몇 번 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역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 여성주체뿐만 아니라 단과대(문과대) 여성주체까지 한다는 것은, 특히나 문과대 소속의 여러 농활대들이 타단과대의 농활대보다 여성주의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도 또 덧붙이자면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느꼈던 것은 단과대 여성주체 역할에 대한 애매함에서 나오는 부담감은 배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이란 단과대 여성주체와 기증단의(각 농활대의)여성주체의 역할은 여성주의를 농활에 끌어내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냐 '다름'에서 오는 것이었다. 단과대 여성주체는 대표자의 막연한 부담감과 더불어 기증단의 여성주체 역할의 연장선상의 일을 잘 해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연장선상의 더 포괄적인 역할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단과대 여성주체보다 기증단의(각 농활대의)여성주체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준비했고 농활 기간 내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더 힘이 들었다는 점에서 단과대 여성주체는 이롭기만이라고 감히 말해 볼 수 없다.

단과대 여성주체를 맡으면서 했던 농활의 준비과정은 각 기증단의 여성주체들과 연락하고 세 차례의 회의를 마련한 것이었다. 회의의 내용은 작년의 농활대의 상황이라든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 과정을 숙지한다든가, 작년 농활대 속에서 있었던 여성주의적인 면에서의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고 실제 농활을 전개할 때에 어떻게 여성주의를 끌어내리기에 대한 방안들을 주제로 토론했다. 더불어 여성주의의 교양자료에 대한 공유를 비롯해서 농활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를 바라보며 현재 여성주의에 대한 쟁점들에 대한 토론하기도 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농활 기간 내의 수행과정에 있어서는 중간평가 때 농주체끼리만 형식적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체(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같이 여성주의를 고민한 사람들의 쌓은 신뢰감을 통해)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좀 더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끌어내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하나 결과는 약간의 형식적인 평가였다.)

기증단위의 여성주체를 맡으면서 했던 농활의 준비과정은 세네기들을 중심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교양을 하는 것이었다. 여성주의에 대해 전혀 지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했고, 많이 부딪치기도 했다. 농활 기간 내의 수행과정도 마찬가지로 여성주의에 대한 주제를 통해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부딪치는 것이었다. 준비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학우들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려

고 했고(특히, 여성농민반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여성주의를 운동한다는 차원에서 단과대 여성주체는 기층단위의 여성주체에 비해 활동이 부족하다. 만약 개인적으로 기층단위의 여성주체를 맡지 않고 단과대 여성주체만 했더라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여성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동체 속에서 여성주의를 풀어내자’라는 역할을 절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단과대 여성주체라는 역할은 각 기층단위의 여성주체들과 함께 고민을 토론했보는 자리를 마련(연락망조)하는 것과 더불어 특히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그 사건 해결을 맡는다.(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다.) 물론 이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또는 하찮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단과대 여성주체라는 역할을 소개할 때 가시적으로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를 해결하는 역할로 보이기 쉽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내 스스로도 성폭력 사건해결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한다.) 미리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준비해놓는다는 차원이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체가 “전 농활대가 여성주의적으로 농활을 나기 위함”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단과대 여성주체라는 역할은 농활대 속으로 들어가는 기층 단위의 여성주체들에 비해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하기는 어려운 역할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즉 단과대 여성주체의 애매함이란 여성주의적 농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한 여성주의적 농활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준비하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단과대 여성주체이기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결국 단과대 여성주체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것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다. 반쪽짜리 여성주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재 단과대에서의 단과대 여성주체라는 역할은 단과대 농주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농활의 전반적인 참여에 있어서도 농주체에 비해 그 “전 농활대가 여성주의적으로 농활을 나기 위함”을 수행하는데 있어 역할이 미치는 영향이 작은 구조이기도 하다. 만약 농주체가 여성주의에 대한 의식화를 선행했다면 농활 준비기간 동안 그 내용을 풀어내는 것이 쉬겠지만, 농주체가 여성주의를 잘 모르는 경우 농활 준비기간 동안 전 농활대에게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것은 단과대 여성주체 혼자서는 힘들다. 단과대 여성주체는 농주체에 비해 농활 준비과정에서의 개입이 별로 없어 왔을 뿐더러, 실무에 있어서 여성주체라는 역할이 애매하다.

이 애매함 때문에 단과대 여성주체라는 역할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 단과대 여성주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 애매함을 넘어 “여성주의적 농활나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다음 농활대서 단과대 농주체와 여성주체가 분리되어 있고, 각 기층단위에 여성주체가 모두 세워지는

그런 같은 상황이 된다면, 우선 단과대 여성주체는 기층단위의 여성주체를 꼭 겸임하라는 팁을 전해주고 싶다. 단과대 여성주체의 하나의 역할은 여성주체의 역할에 못 미치는 것이므로 그 활동 공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완전한 ‘여성주체’라고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 농활대 속에서 여성주의를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이를 발판삼아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주의를 풀어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기층 단위의 여성주체들을 세운 다음 각 농활대에서 여성주의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여성의 고양 및 회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이외에 농주체와 여성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주체들과의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농주체, 여성주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의를 참석하고 함께 고민을 토론, 모든 농활대원들이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다음 농활대에서는 좀 더 ‘여성주의 농활나기’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3) 여성주체가 세워지지 않았고, 단대 여성주체와 단대 농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주체와의 관계들 및 전반적인 농활 평가

오리

단대 여성주체를 맡게 되었다. 단대에 있는 반이나 과,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주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고, 굳이 뽑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각 단위의 여성주체가 미리 뽑혔다면 같이 만나 여성주의 세미나도 진행하고, 농활에서 여성주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기에 반이나 과, 동아리 농주체와의 만남이 중요했다. 농활 전에 각 단위의 농주체들과 함께 농활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여성주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세미나를 제안할 수도 있겠고, 이전 농활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나 성차별 케이스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다. 혹은 개인적으로 편하게 밥이라도 먹으면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여성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도 좋겠다. 처음 만나는 관계가 대부분이라 별뿔하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기가 힘들었는데, 농활 준비를 함께하면서 조금 친해졌다면 말을 조금이라도 쉽게 꺼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기에 단대 농주체가 하는 일을 여성주체도 나누어서 같이 하면서 각 단위 농주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여성주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각 단위에서 빨리 세워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위 여성주체가 세워지면 단대여성주체와 만날 수 있도록 단위 농주체들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1.4) 농활준비가 전반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여성주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초점으로 한 고민 풀이 겸 농활평가

거울

농활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각 단위에서는 농활학교 등을 실시하면서 교양을 하고, 핵심적인 몇몇 주체를 미리 세워 마을 답사를 나가기도 하고, 다른 단위의 주체들과 회의도 하고 교양도 나눕니다. 이 과정들이 선행되어야만 결코 길지 않은(농활대 내부 교양과 준비로 일정을 할애하기에는, '연대'를 하기에는 실로 너무나도 짧은) 농활 기간동안 알찬 농활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위별로 농활을 갈 인원수도 대강이 나뉘어 파악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단위에서의 여성주의 교양이나 여성주체들끼리의 교양은 도무지 실현할 수 없는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성주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농활에 가서 무얼 하는지, 왜 가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단위가 많았습니다. 기껏해야 '매년 가던 거니까', '가서 9박 10일 동안 동고동락하면 친해지고 좋으니까' 등의 부차적인 이유들이 농활을 가는 주된 이유가 되어버린 단위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리 인원을 모집하고, 함께 농활을 준비해서, 철저히 농활을 수행하고 후에 평가까지 해내는 데에 힘을 쏟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러나저러나 열흘 동안 농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암담한 상황들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대에서 농활을 준비하는 사람들과의 역할분담과 논의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어 여성주체의 역할과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각 단위 농주체들과 조금 세미나를 할 수 있었지만, 두 명의 여성주체 가운데 다른 한 분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참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겨우 당일날 출발하기 한 시간쯤 전에야 각반에서 출발하는 여학우 인원을 묻고, 그에 맞게 생리대를 나누어 배분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달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각 단위 여성주체들과의 소통의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문제는 없는지, 고민거리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합의가 잘 되었는지 묻기는 먼 일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미리 이야기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 탓에, 각 단위 여성주체들은 대개 '여자중에서 한 명'이 맡은 것 같았습니다. 여성주체라는 역할로 농활을 수행하는데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각 단위 여성주체들과 단대 여성주체만큼은 긴밀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각 단위에 들어갔을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규율을 정하고 각 주체 선정도 마친 단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 단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농활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을 함께 했었다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번 농활에서 목표로 잡았던 것은 각 단위의 분위기를 보고 느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고, 농활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 단위들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보다는 바라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편견을 없애고 여성주체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단위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행동하되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요청하는 위치 설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과연 여성주체라는 시선이 농활대 중에 있었다는 것이 농활대에 '감시'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몇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단위의 올라가는 사정에 맡겨둔 부분도 있고,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 같아 제쳐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목표한 대로 지켜보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각 단위의 분위기는 어떤지, 각자의 생각은 어떤지 느끼고 듣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를 모색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페미니스트'에 대한 엉뚱한 편견과 경계심을 푸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2. 여성주체의 역할과 고민, 그리고 문제제기

2.1) 중앙-단대-단위 별 여성주체의 구체적인 역할

여성주체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질까요? 각 단위 여성주체로서, 단대 여성주체로서, 그리고 중앙 여성주체로서 해야 하는 일은 각각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중앙-단대-단위 별 여성주체의 구체적인 역할

중앙 유나

-중앙의 역할

중앙 여성주체는 최대한 빨리 세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급하다고 여성주의나 성평등, 농활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여성주체가 된다면 큰 일 이겠지요.

중앙 여성주체의 첫째 임무는 단대 여성주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빠르게 정해지는 단대 농주체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압박(?)해야 합니다. 단대 여성주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대부분의 단대 농주체들은 이월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급하게 세워야 할 필요성과 책임을 강하게 느끼기 힘들고, 이곳저곳 계속 찾아보지 않으면 단대 여성주체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적이지요.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여성주체는 첫 번째 농주위, 첫 번째 시농주위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민회와 끊임없이 여성주의, 성평등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농활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이 중앙 농민회와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성평등, 여성주의적인 농활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진행하면 조금은 달라지겠지요. 준비과정에서 마을주체교육에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거나, 농민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거나.....

단대 농주체와 작년 혹은 재작년 단대 여성주체를 통해서 단대 나름의 상황을 파악하고, 단대 여성주체까지 있다면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작업은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솔직히 5월 말도 늦은 감이 있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랄까.... 각설하고, 단대 여성주체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전에도 중앙 여성주체는 각 단대 여성주체들과 만남을 이어가야 해요. 그래야 서로 신뢰도 쌓이고, 단대 상황을 많이 알 수 있으니깐요. 단대 여성주체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토로하고 앞으로 농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아주아주아주 뜻

깊은 자리입니다. 단대에서는 함께 고민 나눌 사람 찾기도 어려운 게 요즘 학내 현실이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생기지요. 중앙 여성주체는 이러한 자리를 끊임없이 마련하고 함께 신뢰를 토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잘 안 되었지만, 농주체들도 함께 이 회의에 있으면 이보다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대 여성주체들의 힘들이 한 사람의 어깨에만 고스란히 남아있느니 나누는 게 좋지요. 회의에서는 단대 상황 공유, 이번 농활의 목표, 단위 상황 공유 등을 갖고 이야기하고 교양을 진행합니다. 주제와 커리는 단대 여성주체들과 함께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갖고 조를 나눠서 토론한 뒤 그 토론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내용은 여성주의, 성폭력과 성폭력사건처리, 여성농민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수록 좋습니다. 시간만 되면 함께 영상을 봐도 좋고, 만들어도 좋고,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이렇게 단대 여성주체 교양까지 진행했다면 준비는 대략 끝났습니다. 시간 되고 의욕 넘친다면 단위 여성주체 모임에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위에서도 들을 내용 많고 배울 내용 많으며 나눌 이야기 많으니깐요.

실제로 농활에 가서는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단대 여성주체들과 매일 통화를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부터 시행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중간 평가 때 여성주체는 따로 회의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농주체들과 신뢰가 쌓여있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여성주의적인 부분에 대해 단대 농주체, 여성주체가 큰 신뢰를 갖기 힘들지요. 함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니깐요. 그랬을 때, 따로 모여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상황 이야기 듣는 시간이 중간에 있는 건 필수적일지도 모릅니다.

농활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진행해야겠지요. 뭐 평가하는 거야 다들 아실 거고...

사실, 이러한 역할을 중앙 여성주체 혼자서 하기는 힘듭니다. 중앙 농주체와 신뢰를 쌓는 건 중앙 여성주체에게도, 농주체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농민학생연대활동을 농민회와 끊임없이 조정하고, 학생들과 공유 선전하는 작업들을 함께 할 사람이 있고 나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붙어다닐 사람이니까..

-단대의 역할

단대 여성주체는 일찍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들과 조직적으로 만나거나 고민을 공유할 시간이 많이 없지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만납니다. 단위

여성주체를 세우기 위해 단위 농주체들, 작년 단위 농주체/여성주체들을 만나고 계속 고민을 나누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단대 농주체가 하는 일은 거의 다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단대 농주체는 단위 농주체를 세우기 위해 단위들을 설득하고, 찾아다니고 연락하는 작업을 계속하는데요. 이 때 함께 해야 합니다. 비교적 일찍 세워지는 단위 농주체와 신뢰가 쌓이면, 여성주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단위의 고민을 듣고 함께 고민하기 수월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단위 여성주체가 섰다면, 단위 여성주체 모임을 주최합니다. 여성주체가 안 선 단위에서는 단위 농주체라도 꼭 오도록 해야해요. 암바를... 이 곳 저 곳을 통해 최대한 가해서 오도록... 여성주의적 농활, 성평등한 농활에 대한 이해없이 가는 농활은 진정한 농민학생연대활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단위 여성주체 모임에서는 단대여성주체모임과 마찬가지로 단위별 상황 파악, 고민 나눔, 농활 목표 설정 등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교양 역시 진행합니다. 교양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기획해서 진행할 것인지는 단위로 돌아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함께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농활에 가죠. 농활에 가면 단대 여성주체는 반을 돌아다니는데요 대부분, 단위들 돌아다니면서 마을 상황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단위 여성주체의 고민이나 단위 농주체, 대원들의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팀 같은 것들이랄까요. 교양을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단위에서 진행하는 교양에 참관인 정도로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라도 돌려서 각 단위 여성주체 및 농주체와 통화하고 어땠는지 하루 평가 들어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요.

역시나 농활이 끝나면 평가!

-단위의 역할

가장 중요합니다. 단위 여성주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여성주의적인 농활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담감도 크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단대 여성주체 및 중앙 여성주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단위에서의 어려움 중 단대나 중앙과 이야기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위 교양 진행 시 여성주의적 농활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주 세부적인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게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준비 역시 혼자가 아니라 단위 여성주체 모임과 함께 하면 좋겠죠?

단위 농주체에게도 이 중요성을 끊임없이 인식시키면서 단위 여성주체 어깨에 있는 부담과 어려움을 나누고 (으쌔) 같이 해 나가야 해요. 여성농민분반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부분들을 하나 하나 이야기하면서 농대원들과 풀어나가는 일이 혼자하기는 쉽지 않지요.

최대한 많은 상황들을 접하고 갑니다. 농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 많이 듣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고 가는거죠. 물론, 이런 고민은 농대원들도 함께 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단위 여성주체가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위 여성주체, 파이팅!

2.2) 나이와 학번, 성별에 대한 고민

어떤 주체든 마찬가지로 여성주체 또한 고민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물론 어떤 고민이든 농활대원 모두가 함께 해야할 것들이지만, 특별히 특정부분을 신경쓰는 사람을 '주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주체들이 해야할 고민은 무엇일까요. 농활대에서의 부당한 나이, 학번, 성별에 의한 권력을 고민하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2008 여성주체들이 했던 나이, 학번, 성별 권력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나눠봅니다.

큰형님이야기

오리

나는 학번이 꽤 높은 여성주체였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이 12학년이었던 농활대원들에게는 내가 '모셔야' 할 선배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알던 사람도 아니고 농활하면서 처음 만나는 고학번이었으니, '어느 정도 선배대접 해야 되나' 고민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지점 때문에 여성주체로서 해야 할 말들이 있었는데, 일방적인 명령으로 받아 들여질까봐 조심스러워서 잘 못했다. 농활대원들이 내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앞에서만 약간 조심하는 식으로 정리될까봐 두려웠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누고 싶었다. 의견이 다르면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학번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말을 못한 것 같다. 말하면서 친해지는 것일 텐데, 너무 뻘 것 같다. 걱정과는 달리 고학번이라는 꼬리표 없이 이야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보고 고민할 걸...

성별과 권력

살도독

권력이란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기반을 가진 권력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나이권력과 성별권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 '장유유서'에 기반한 나이권력과 '가부장성'에 뿌리를 둔 성별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 사람과 사람간의 삶이 평등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지위와 권력을 획득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한 단과대의 농활주체이자 여성주체였고, 대부분의 농활 대원은 새내기였다. 그렇기에 나는 농활 대원들에게 나이권력(또는 학번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 편으로는 농주체/여성주체로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발언은 평범한 농활대원 한 명의 발언보다 훨씬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향력이 나쁜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과연 그 영향력을 바르게 활용하였을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대개 농활대원들에게 일을 '지도' 하고 '분배' 하였다. 지도의 경우 불가분하게 일방향의 소통이 되었다. 그러나 분배의 경우, 분명 그것이 서로간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개 명령어조로 말하였고, 그리고 그 것은 나의 학번권력과 지위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의 토론 없이 그 일이 진행되게 만들었다. 물론 일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기는 했다. 토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마치 박정희의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화를 미루어도 된다'는 생각과 비슷하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를 하고 있었었다.

변명을 잠시 늘어놓자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다. 대다수의 농활대원은 농활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만 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봉사정신이 투철한 특정한 농활대원(대개는 여성이 그 역할을 했다)이 마을 농활대원 전체의 빨래나 청소, 설거지를 도맡아 하곤 했다. 그렇기에 여성주체인 나로써는, 일의 분배에 대해서 간섭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말하기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마을 대원들에게 '일을 왜 나누어서 해야하는지' 혹은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해라'라는 투의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권력 때문에 아주 쉽게,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나의 말은 그동안 일을 전담해 왔던 농활대원에게는 만족을 주었지만, 그 외의 농활 대원들에게는 '강압적이다'라는 인상

만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나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았고, 나는 고쳐보려 했으나 물론 쉽게 고치지 못했다.

여성주체로써, 그리고 농주체로써, 혹은 한 명의 선배로써, 이러한 행동이 옳았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물론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나 자신에 대한 변명을 계속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매우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 안에서 대다수의 남성들은 집안일을 잘 하려 하지 않는다. 여학생이 집안일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여학생이 한 명 있으면 그 여학생 한 명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대다수의 남학생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듯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 - 라는 생각은, 나를 위한 정당화일까. 여성주의적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이권력으로써 성별권력을 타파해보려 한 나의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맞겠지만 말이다.....아직도 나의 고민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흑흑.

게이, 농활가다.

나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과 같이 비이성애자들이 농활에 다녀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대 농활에서도 성소수자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로서" 농활에 다녀온 사람은 없다.

다녀오고 이런 식의 글을 농활대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쓴 사람도 내가 처음일지 모른다. 내가 처음이라고 빠기는 게 아니다. 지금의 농민학생연대활동이 이 사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이성애중심적임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농촌에 가면 성별에 따른 역할 규정이 더 강력해지는 것 같다. 소위 '농촌문화' 안에서 성별분업은 강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에 대한 고민없이 연대활동을 하다보면 쉽게 휩쓸려 가곤 한다. 여성에게 집안일 잘 해야 시집가서 이쁨 받는다고 '덕담'을 하시는 농민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남성인 내가 "저도 요리 잘해서 남편한테 이쁨 많이 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건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사실 농활대원들 간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이성애자로 간주되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호모포비아에 있는 상태에서 커밍아웃하는 것부터가 장벽이긴 하다. (내가 게이라고 옆에서 자기를 꺼려하거나, 이런 걸로 농담하는 사람들을 건달 자신은 없다.)

농활에서 명확하게 여/남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은 또 다른 억압을 만들어낸다. 화장실이나 샤워실, 잠자리 이 모든 공간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여/남으로 구분하려 하고 여기에 잘 들어맞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슈얼은 성별을 의심받는 존재가 된다. 특히나 동성간에는 같이 씻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불편한 이들은 쉽게 '이상한 애'가 되어버리고, 소외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여자 남자 모두 같이 자고 이래야 한다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무턱대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잠자는 공간을 나누는 것은 지금 이 사회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성폭력은 공간만 나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공동체 구성원 간에 필요하고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에야 "어떻게 해야" 같이 농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인 척하며 농활에 오던지 성별이분으로 나뉘어진 공간때문에 오는 못하던지 둘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만약 공동체에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생태주의나 여성주의처럼) 이 문제를 농활에서 풀어내려 한다면 이런 연대활동도 좋을 것 같다.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예전에 남자끼리 살거나 여자끼리 사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는지, 단짝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같은 것들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한 논문에 보면 1940년대 까지만 해도 강원도 지방에는 남성 동성 애인을 칭하는 '수동무' 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남성동성애문화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인터뷰하고 가려져 있던 경험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물어보기는 조금 무서워서 못했지만.)

농활에서 철저하게 비가시화 되어 있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글을 쓰긴 했는데, 현실이 조금 막막하긴 하다. 농활을 하면서 보니, 소위 '농촌 문화' 라는 것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더라. (사실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일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품앗이는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으로서의 농업만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사를 하는 농민들을 없애려 하며, 다국적 거대 식량 회사들은 종자 시장까지 통제하면서 현재의 농촌의 기반과 환경들을 바꿔버리려 하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농촌 '총각' 들은 이성애 결혼을 꼭 '해야' 만 하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 신부감을 데려온다. 이렇게 급변하는 농촌의 현실에서 '우리 것' 을 살리는 것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안' 으로 다가오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우리 것' 에 성소수자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다.

예전에 농담처럼 '이번에는 농활가서 마을 잔치 때 퀴어파티를 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농민과 학생들이 여성/남성에 구분없이 웃을 입고, 꾸미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다. 언제나 그렇듯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너무 커서 웃긴 농담이 되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퀴어파티를 꿈꾸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농사짓는 성소수자분들, 힘내세요.

2.3) 문제제기

고민을 실컷 하긴 했는데 정작 문제의 '불편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이야기하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고, 나중에 하자니 다들 어떻게는 넘긴 다음에 이야기해봤자 괜히 까칠하게 구는 것 같고, 교양이나 평가시간이라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없는 경우에는? 단위/중앙 여성주체들은 농활기간동안 많은 단위를 도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 두 개 이내의 단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는 농활 전부터, 농활 중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합의'로 결정하는데, 과연 이 합의란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거울

농활대 내에서, 혹은 농민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지적을 해야 하나, 나중에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분께서 '남자애들만 이리 좀 와 봐라' 하시며 성별분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때 그 때 지적하는 방식은 사소하다고 생각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경각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넘어갈 수 있는 별 거 아닌 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도 '이전까지는 그정도 일은 괜찮았다', '왜 갑자기 예민하게 그러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적했을 때, 문제 요소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면 감정만 상하거나 이후에도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한 대원의 일시적인 신경질'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릴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나 교양을 하면서 농활대 내에서 함께 대처법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의 고민이나 행동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황이 벌어진 직후에는 고집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모두가 '겉고려움'을 인식하는 정도로 해 두고 나중에 깊이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고, 바로 지적하기에는 부담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상황을 설정해놓고 함께 고민하거나 연습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교양과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교양이나 평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쟁점에 대해 별로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도무지 대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심각하게 토론할 분위기가 안 된다면, 일상 속에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가봅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잡담하듯이, 한 두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해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성주체'에 대한 경계심이 있거나 친분이 없어 쉽게 공감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민한 이야기들을 그나마 쉽게 하기 위해서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쉽게 감정을 공유하고 경계심 없이 생각을 정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고민을 나누기가 쉬워집니다. 여성주체가 그 단위에서 농활기간만이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친분을 쌓아 조금 이야기를 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벽을 허물기에 충분치 못하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며칠씩 짧게 여러 단위를 돌면서 어디 문제는 없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방식은 많은 단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 단위 소속은 아니지만, 이번 농활을 함께 수행하는 농활대원'이라는 느낌보다는 '시찰하러 온 손님'이라는 느낌을 심어주어 오히려 경계심을 살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될 단위들이 여성주의에 대한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고, 여성주체의 단위 방문에 열려 있는 상황이라면 짧게 여러단위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단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례들을 듣거나 전해줄 수도 있고, 이후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도 잠깐이나마 함께 농활을 수행해 본 단위 여성주체와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주체에 대해 우호적이라기보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단위들이라면, 긴 시간을 두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는 방식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주체로서 단위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단위 대표자들과 회의를 할 때, 많은 '질문(혹은 항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가 보다는 그 단위와 마을의 상황에 맞게, 단, 어느 누구도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고민과 성찰과 토론 끝에 나오는 합의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그 단위만의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딱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괜찮아?'라고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이 정도야 감수해야지'하거나 문제를 사소한 것,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이야기가 되었다고 관찰시켜서도 안 됩니다. 대원들이 일정 중간부터 참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중간에 합의가 된 내용 가운데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암묵적인 동의'는 '암묵적인 폭력'일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3. 분반활동

우리가 농활에 가서 여성주의로 소통해야 하는 것은 함께가는 농활대원들 뿐만 아니라, 여성농민들도 있습니다. 일부 단위에서는 분반 활동으로 여성농민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성농민반에 관련한 여성주의적 평가 내용

문대 주현

여성농민반은 열었는데, 이모님들은 상대로 1부-[현재]이모님들의 현재 생활 및 시간표 그려보기, 2부-[미래]이모님들이 하고 싶은 것들(오로지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만)로 나눠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는데(+오이 마사지까지) 마은방송 홍보 이후 할머니들까지 오셔서 그 내용이 바뀌어야만 했다. 물론 이모님들 할머니들 많이 오셔서 여성농민반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약자지컬하고 좋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마음이 가족마음? 이라서 할머니와 이모님이 가족인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모님들이 할머니들의 눈치를 많이 보셔서 인터뷰 발표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세세하게 준비해야 했는데, 다음에는 할머니반과 이모님반을 따로 나눠서 준비해야겠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농민반 중에 이모님의 언어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 내의 여성주의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대응 못한 것에 초점을 두고 침울해 하기보다는 여성주의에 대한 경험은 농활대 내에서 숙지하고 공유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성농민반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다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이모님들 무려 스무명!!!!이나 오셔서 성과가 있었고 이모님들의 사는 이야기, 경험들은 많이 말씀해 주셨다. 이모님들은 작년에 시집살이 등의 눈치로 못 오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오셔서 좋았다. 모든 이모님들과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남겼다. 주로 새내기들이 이번 여농반을 계기로 느낀 점이 많았다.

여성농민 분반활동은 낮잠시간에 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별로였던 작년에 비해 올해 여농반은 이모님들과 매우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한번밖에 못한 여농반이 매우 아쉬웠다. 여농반 주제는 어렸을 때의 꿈이나 하루 일과로 2시간정도로 잡았는데 분위기는 좋았고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지는 못하였다.

4. 실제 사건처리 과정

실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사건 화할지는 다르겠지만, 덮어두지 말고 사건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처리를 겪어본 여성주체들의 글을 실었습니다. 공개된 연산면성폭력사건처리과정을 다룬 문서도 뒤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건처리의 중요성

유나

연산면성폭력사건에 대한 내용이 백서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뽕뽕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분량이라, 왜 이렇게 긴 내용을 전부 여성주체 백서에 넣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폭력 사건은 이 성차별적인 사회 어느 곳에서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대체 무엇이 해결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러한 어려움은 농활에서 역시 그대로 드러납니다. 같은 농활대원들 사이에서, 농민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은 단지 '농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문제적이었던 일들이 10박 11일동안 같이 살면서 농축적으로 드러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농축적으로 나타나는 농활에서의 성폭력 사건에는 온갖 권력관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배권력/ 나이권력/성별권력 등등이 있겠지요. 무엇이 성폭력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부터,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이 권력관계는 끊임없이 드러나고, 수월한 사건처리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 성폭력이 발생하고 어떻게 저렇게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되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일' 이 '구체적' 으로 있었는지에만 관심을 쏟아서 피해자는 오히려 뜬 소문과 말도 안되는 오해들에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는 2차 가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사건처리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 피해자건 농활에서 성폭력 사건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사람들이건 경험이 없으면 막막하기 그지없는데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전에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갔는지

를 볼 수 있으면 좋으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과정을 참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연산면 성폭력 사건은 농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물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일이 또 다시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만에 하나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연산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참조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사건 처리 과정 공개를 합의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진행 된 지난한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입니다. 읽기 힘들 수도, 읽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필요할 때가 있으면 꼭 찬찬히 읽어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 성폭력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집단에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떠올라서 나를 막아버리는 그 장벽을 함께 거두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단지 '농활' 에서만 필요한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일이지 않을까요?

-연산면 성폭력 사건 처리 방식이 '정답' 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성폭력 사건 처리는 없고, 피해자와의 능동적인 활동과 소통을 통해 매 번 새로운 논의/실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산면 성폭력 사건을 앞으로의 사건 처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한 연산면 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참고할 만한 책자들

- 백서들 (백서 찾기는 생각보다 힘듭니다. 가까운 중여학생회나 성폭력 상담실, 여성운동단위 등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매 년 출간되는 <여성문제를고민하는연세자지단위연대>의 성평등자치규약자료집

- 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

(중여학생회 페미니티에서 대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인터넷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 활동가를 위한 도토리 중전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상담소

(중여학생회에 문의해보십시오...)

-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울(한울아카데미)

(일반서점에서 판매합니다!)

- 이 외에도 작년 여성주체들, 제작년 여성주체들, 농주체들, 중여학생회, 학교 성폭력상담실, 한국 성폭력 상담실 등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연산면 성폭력 사건 비대위 활동에 대한 보고

피해자 측 대리인 우주

작년 12월, 연산면 농민회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자보가 학내에 붙여졌다. 이는 약 5개월 전의 일을 담은 것으로 문과대 철학 8반 농활대원들이 연산면에서 농활을 하던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폭로이자, 비대위원들의 책임 방기에 대한 폭로였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 직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성폭력 사건으로서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움직였다. 피해자 일동은 철학 8반 안에서 논의를 거치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이후 철학 8반 내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과대 농활 주체와 여성 주체, 장전 2리 농활대 여성주체를 구성으로 학생 측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

하지만 피해자 일동의 이처럼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한 여름, 7월에 발생한 연산면 성폭력 사건은 겨울 즈음이 12월 본 사건에 대한 폭로 자보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왜 연산면 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이리도 지지부진 했던 것일까?

사건 폭로 자보에서 밝혔듯이 비대위원들의 책임 방기와, 비대위 활동을 농활의 논의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한 움직임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활에서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어떠한 사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농민회와 학생 단위의,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무지와 무감 또한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에 대해 더 자주 말하지 않는 것, 어디서든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어디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더 관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농활은 성폭력에 관대했다. 물론 농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전의 농활에서 성평등 농활을 말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있는 여성 주체,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성평등 농활은 의미가 없다. 감히 말한다면, 그저 구색 맞추기, 그럴싸한 농활 만들기에 국한되어 있던 反성폭력은 성평등 농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고, 피해자측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벽이기도 했다. 피해자측 대리인과 중앙농주체, 논산시 농민회 총무로 이뤄진 본 사건의 비대위는 피해자 일동의 요구사항(가해자 사과문,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농민회 전체 反성폭력 교양)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과 성평등한 농활 만들기를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는 것을 비대위 활동의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농활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처리의 원칙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 - 농민회와 학생 간 - 가 전혀 없다는 점이 계속해서 비대위의 활동을 제한했다.

비대위의 논의에서 합의된 부분을 이행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떠한 제약과 제재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끝내 생각해내지 못했고 농민회 전체 反성폭력 교양이 결국 시일 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여름 농활에서 비대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다시 이뤄지기에 이른다. 이것이 7월 농활의 일이다.

여름 농활 전 두 차례의 농민회 전체 反성폭력 교양이 있는 것에 대한 피해자 일동의 합의가 있었고, 서로의 역량에서 이것을 지속해서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그 시간 내에 농민회 - 학생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시간상의 제한으로 농민회 - 학생 간 비대위 활동에 대한 논의는 처음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전화로 논의하고 확인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서로 확인할 필요가 매번 있었는데, 올 7월 문제로 붙여진 것은 농민회에서 본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과 비대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이에 급급한 나머지 성평등 농활을 만든다는 큰 목표에 대해 비대위 구성원 모두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케 하는 부분이었다.

피해자측 대리인으로 비대위 활동을 진행한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점에서 후회되는 것이 있다. 첫째는 학내에 폭로 자보를 통해 본 사건을 알린 이후,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의 혼선과 진행을 그대로 알림으로써 성평등한 농활 만들기에 더 충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 둘째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 일동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여름 농활을 준비하며 본 사건과 그 처리 과정이 공유되었고, 성평등한 농활 만들기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했다는 점, 이 글을 비롯하여 다른 글들로 함께 이뤄지는 자료집이 있다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만큼이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또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대위 활동을 시작할 때의 폭로 자보의 말을 빌려 글을 마칠까 한다.

"농민과 학생간의 연대는 단순히 그 활동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 농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양이 필요하며 사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약까지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야 연세대 농활에서 농민과 학생간의 진정한 연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1) 여름 농활이 시작되기 전 90분씩 2회 실시 : 실제로는 1회,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2) 가해자 사과문,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또한 이메일로 문서와 진행과정을 전달받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며, 농민회 전체 反성폭력 교양의 진행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상호간 검토 확인하였다. 진행 사항의 전달은 당일 사용된 교육 자료와 교육 상황을 찍은 사진으로 대신했다.

5. 별별 팁들

그래도 여전히 공간, 씻는 문제, 빨래, 마을 농민분들과의 대화 등등 사소하게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이 하나하나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농활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팁들을 준비해보았어요!

5.1) 농민분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나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른 농민분들과 우리 학생들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업하면서 대화가 없다면, 그건 농활이 아니겠죠? 마실 돌면서도, 평가 하면서도, 뒷풀이 자리에서도 농민분들과의 대화는 농활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니까요~

이렇게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가 '쉬워지는 지름길'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듣자.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보자.'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겠죠? 나의 관심사와 농민분들의 관심사 중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조심스레 꺼내보면 어떨까요. 농활 기간동안 자신이 맡은 '~주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도 재미있구요. 농활의 기초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모두들, 잘 안 되어도 파이팅해서 포기하지 말자구요~!

5.2) 농활에서의 공간문제에 대하여

준영

농활은 일정기간동안 많은 이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 공동체 활동이다. 여기서 '공간'은 공동체 생활을 담보하는 '의식주' 중의 하나를 이루는, 필수적인 물리적 조건이다.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같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성평등 농활을 고민한다는 관점에서 공간문제는 여남의 숙제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에 더욱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 지금까지 <혼숙을 피하는

것>, <여남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것> 정도가 성평등 농활의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어온 공간문제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분리만으로 논의가 한정되어 내려서는 안 된다. 어떠한 관점과 의도에서 공간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 공동체 차원에서 어떠한 실천이 가능한지 농활대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만큼 농활에서의 공간문제에 대해 성평등 농활의 관점에서 다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것은 농활 준비 및 수행, 평가 과정에서 꼭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농활에서는 주로 마을의 공공장소인 마을회관, 노인회관(앞으로 통칭하여 회관) 등의 장소를 농활대의 숙소 및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숙소의 기본적인 공간 구성을 일반화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마을마다 회관의 형태, 사정, 상황, 상태(무엇이 되었든)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소로 사용하게 될 회관의 특성에 맞게, 실정에 맞게 공간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농활을 준비하는 기간에 진행되는 답사에서 숙소의 특성을 꼼꼼히 파악하고 나서, 사전 준비 기간 동안 공간 사용에 관한 농활대 차원의 구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옷 갈아입는 공간, 취침 공간, 화장실(세면 공간) 사용 문제, 공동생활 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포인트는 우리가 왜 이러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 서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이다.

성평등 농활의 관점에서 공간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취침 공간 분리를 비롯한 여남 생활공간의 '분리'가 '성평등 농활'이나 '농활 성폭력 예방'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간 분리 → 성폭력 예방 → 성평등 농활>이라는 명제가 항상 '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간'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채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겠는가. 농활 공동체 내에서의 충분한 고민의 결과로 하나하나의 구상들이 정해지고, 그 구상들에 담긴 뜻이 개개인 농활대원들의 실천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구현'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기계적인' 생활공간의 분리에 의해 농활대의 일상 자체가 여남으로 조개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여남 농활대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각자 그들만의 공간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남이 농활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의 힘은 이토록 무섭다.;

이렇듯 농활에서의 공간문제는 참 중요하지만, 하나의 답을 내려기가 참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농활기간동안 우리의 '공간'을 불편함 없이 모두가 즐거운 '성평등 농활'로 채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3) 빨래하기

쌀도둑

농활을 하다보면 작업 때문에, 그리고 더위 때문에 옷이 쉬이 더러워진다. 10박 11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빨래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두 세번은 빨래를 해야 농활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빨래는 어떻게 해야할까? 마을에서 있었던 몇몇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사례1.

농활대원들은 거의 다 남학생이었고, 여학생은 3명이었다. 그 중 07학번 여학우가 모든 학생들의 농활 티, 몸배, 양말, 속옷을 모두 챙겨다가 매일 빨래를 했다.

사례2.

작업 끝나고 마을회관에 돌아오면 너무 힘들다. 빨랫감을 모두 모아 이장님 혹은 마을 주체 삼촌께 부탁드려 세탁기를 이용한다. 한 시간 후 찾아가면 옷가지는 탈수까지 끝나 있다.

사례3.

남학생들의 속옷은 옥상에서 햇볕 받으며 마르고 있는데, 여학생의 속옷은 가방 안에서 잘 썩어가고 있다. 이제 입을 속옷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농활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익히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물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농활에서 피할 수 없는 빨래 역시, 이 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빨랫감은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빨래당번은 정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 명의 옷을 한 명이 빠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될 수 있으면 자신의 빨랫감은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와 같은 경우, 농민 분들이 호의를 베풀려 하시는 경우 정중히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가 여성 농민분들의 가사노동의 양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에,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빨래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합니다.

속옷의 경우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마음껏 빨래를 하고 말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서로의 속옷을 넣어놓는 것은 20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해 온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하루씩 돌아가면서 서로의 속옷을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속옷을 안 빨면 가방에서 썩은내가 나니 반드시 빨아서 말리도록 합니다.

5.4) 작업분배는 어떻게?

오리

작업을 하러 가면 농민들은 주로 성별을 기준으로 일을 배분해줍니다. 쭉그러 앉은 것은 여자들이 더 잘 한다거나, 무거운 것들은 남자들이 더 잘 든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된다. 물론 힘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남성들에 비해 힘이 약한 여성들에게 배려의 차원에서 다른 일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있다. 하지만 성별에 기반해 획일적으로 일은 나누는 방식은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힘이 센 여성들도 있고, 약한 남성들도 있다. 우리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활에 온 것이 아니다.(성별분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않.)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성별분업을 방지하는 방법:

① 작업주체는 그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몇 명이 필요한지 농민분에게 미리 물어본다. 어떤 자세로 얼마나 근력이 필요한 일인지 자세히 물어본다. ②농활대원들과 일의 특성을 공유하고 몸이 아픈사람이나, 각자의 신체조건(큰 키가 필요할 때도 있다.)등에 고려하면서 작업을 나눈다. ③일 잘하려고 농활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을 할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많이 찾는다. 무거운 것이 있으면 같이 드는 식으로. ④농민분들이 뭐라고 하신 때에는, "같이 할 수 있어요"처럼 가볍게 넘어가고 직접 보여드린다. ⑤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성별이 아닌 개인의 조건에 맞추어진 것이라는 걸 모두가 공유한다.

* 사실 개인의 조건에 따라 일을 배분하다보면, 어느새 여/남 구도가 되어있기도 하다. 이 구도를 직접 뛰어넘어 깨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일을 나누는 것의 문제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5.5) 술자리에서

지수

농활에서 빠질 수 없는 저녁 술자리. 농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잔씩 주고 받으며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불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딸 갈아 이쁘다'며 농민분이 학생에게 원치않는 접촉을 해سو기도 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 이거 뭔가 아닌데..." 이리저리 굴어 있지 말고 숙련들이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실단 최선의 방법은 미리미리 농민분들과 이야기를 통해 '성명들은 무엇이고' '어떤 지점에서 고민해보고 조심해야하는 지' 풀어가며 어느정도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다 이야기 하지 못해도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아이고 숙련 이런거 조심하기로 했잖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버님이 귀여워하시는 거 다 아는데 이런 거 불편해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위에 의식있는 사람들이 함께 줄게 줄게 중조하며 잘 풀어나가야 힘이 된다. 농민분이 불편하실까봐 무조건 참는 것은 연대활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리 좋은 해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분위기가 잡지 않아도 사소한 사제를 줄거나 천진난만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으므로(물론 이게 정말 힘들다) 대처법을 잘 준비해가면 좋다. '순바'라는 호칭에 관한 이야기나 딸이나 손녀 이야기 같은 것들이 예가 될 수 있다. 성차별적인 발언에 "여자라고/남자라고 그런일을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든가 "남자가 힘있세다면 빨래같은 것을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도 좋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야기로 풀어나가기 힘들 때도 있다. 농민분이 너무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농대원들이 주위 농민분들에게 너무 취하셨고 늦었으니 서서 가야하시지 않느냐고 말하며 실단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것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아니면 그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 중재할 수 있다. 술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은 수도없이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묻혀져 끝아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6) 마을잔치에서는?

주현

마을잔치에 관련한 농활대의 여성주의적 평가입니다.

"마을잔치는 작년에 마을 회관에서 100M 떨어진 정자나무에서 치렀지만 올해에는 마을 회관 바로 앞에서 하게 되었고, 마을 회관(요리하는 장소)과 가깝기 때문에 이모님들이 도우러 많이 오셨다. 멀티 탭을 통해서 요리하는 공간을 밖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잘 안되었다. 여/남성 농민의 공간이 분리되는 현상도 있었다."

"작년에 비해 이모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줄어들었다. 마을 회관이 아니라 트인 공간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는데, 밀폐된 공간이 아니어서 덜 지치고 눈에 띄기도 쉬워서 교체하기도 쉬워서 좋았다. 이모님들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을 잘 거절했다. 주체삼촌이 특히나 요리를 잘 해주시기도 하셨다. 마을잔치에서의 여/남 공간 분리를 심했다. 따라서 이모님들의 공간을 확보해야 했는데 확보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애매했다. 나름대로 이모님들을 위한 상을 차리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었다."

"잔치 내내 여성농민과 남성농민의 공간이 분리되는 현상이 보였고 남성농민분들의 눈치로 노래도 별로 못 부르시기도 했다. 이모님들께서 마을잔치에 내 농을 음식을 돌지 않게끔 하게 되어서 좋은 성과였다. (그래도 이모님들이 마을회관에 찾아 오시면서 김치, 상추, 감자 등을 자꾸 갖다 주셨다.)"

마을잔치를 하기 전에 두 번 정도의 논의를 거칩니다. 논의를 하고 나서 이를 동안 마을 방송으로 또는 마을신문으로 마을잔치를 홍보하는 과정도 있었네요. 논의 중에서는 그날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예산을 잡고, 음식은 무엇으로 하고 장은 누가 보고, 물품은 어떻게 준비할지 세세한 일 분배를 합니다. 물론 한 농활대원에게 일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지요.((특히 여학우가 음식을 홀로 맡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논의를 거쳐도 실제 마을잔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농활대에서는 음식하는 장소를 구석이 아닌, 밖으로 내어서 (- 전을 부치는 요리 기구를 밖으로 내어서..)공개를 하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자주 자주 교체될 수 있도록 했다는 사례도 있답니다.)) 여성주의적인 마을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한 농활대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여성농민과 남성농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 농민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 말 것 (특히, 음식부분에 있어서 여성농민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을잔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죠) 등등 또한 함께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마을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면 정신없이 각 농활대원들은 맡은 일을 합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음식을 거의 만들어 놓습니다. 비빔국수와 수육, 도토리묵(상하기 쉽습니다), 인절미, 수박을 준비했더랬죠.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일찍 마을잔치 장소에 오시거든요.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음식이 딱딱하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민분들께서는 일 때문에 바쁘셔서 오랫동안 계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을잔치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마을 노래자랑을 하거나, 농활대원들이 준비한 율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울(문과대 두레패 동아리)의 신명나는 장구소리와 술과 함께 흥겹게 춤을 추고 저녁 5시쯤 자리를 파했던 것 같네요. 마을잔치가 끝났다고 다 끝이 아니지요~ 마을잔치가 끝나고나서 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각 농활대원들이 함께 치울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피곤하다고 일을 전가하면 안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평가시간에 마을잔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5.7) 하루평가는 어떻게?

거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야기해보기에 단연 좋은 시간은 평가시간입니다. 사실 '평가'라는 일과에 대한 위상이나 분위기는 각 단위마다 매우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주체별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 단위도 있고, 특별히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경우에만 이야기하도록 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주체별로 평가하는 단위의 경우, 여성주체의 평가가 단순한 지적이나 잔소리로 끝나지 않고 평가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화두를 제시하고 다른 대원들의 의견을 묻는 형태가 더 좋을 것입니다. 발언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야 하는 분위기의 교양이라면, 누구나 어떤 화두라도 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가 시간 이외에 근로나 식사시간 등 대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 때 이야기할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분업을 열떨결에 하게 되었을 경우, 자연스럽게 평소 성별분업에 대한 생각이나 분업을 하고 있는 기분, 대처법 등에 대해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근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성주체가 발견한 평가지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대원들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도 살피고, 평가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같이 평가

할 때 분위기가 더 활발합니다. 평가를 진행하는 대원들과도 미리 공유해놓으면 더욱 수월하겠지요. 활발한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초반에는 적절히 한 사람씩 지목해가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논치를 보거나 주눅들지 않도록, 중간에 말을 끊거나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주의를 주면서 모두가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가나 교양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위의 경우, 잘 설득해서 짧게나마 평가를 조금씩 시도해보거나, 공감하기 쉬운 문제들부터 일상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8) 샤워하기

하영

농활에서 매일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샤워입니다. 고작 몇 시간을 작업해도 금방 몸에 땀이 흥건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씻지 않았던 사람들도 농활에 와서는 스스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해야 하는 샤워에 따라오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과대가 들어가는 마을의 회관은 무엇보다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열악합니다. 특히나 마을 회관에는 따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회관의 창고 안에서 문을 닫고 샤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관의 창고는 밖에서만 잠글 수 있어서 안에서 샤워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었죠. 실제로 샤워 중인 것을 모르고 문을 열었다가 변을 당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껌. 또한 물이 어찌나 그리 차가운 지 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작업을 마치고 들어와서 샤워를 해도 너무 추워서 다들 샤워하기를 주저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단과대의 사정도 이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샤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몇몇 마을들의 사례를 보고 생각해보도록 해요.

사례 1. 마을 농민 분들께서 여학생들은 차가운 물로 샤워하지 말고, 집에서 샤워를 하라고 특별히 샤워 공간을 내어주셨다. 남학생들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연약한 여학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였다.

사례 2. 마을 회관에서는 차가운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 작업이 끝나면 각

업을 했던 농민 본의 집에서 샤워를 했다.

사례 3. 마을 농민 본에서 여학생들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 집에서 샤워를 하라고 샤워 공간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함께 의논하여 생리 중인 여학생과 몸이 아픈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마을 회관에서 샤워를하기로 하였다.

농활에서는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알아나가게 됩니다. 또한, 성평등한 농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하죠. 샤워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이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실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농활 기간 동안에는 사례 1과 같은 일이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 3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례 2와 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작업 했던 농민 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로 해요.

샤워 문제는 매일 부딪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농활에서는 이렇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문제들을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모두 즐거울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즐거운 샤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아직도 고민하는 당신! 함께 이야기해 보시길!

6. 같이 고민해 볼 문제들

* 꼭 단대 '여성주체'를 세워야 할까?

유나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는 2008년 농활을 함께 준비했던 여성주체들 대부분이 가졌던 의문이었다. 이 의문의 시발점은 현 '여성주체' 역할의 미비한 영향력에 있다. 2008년도 여성주체들은 한 절반정도가 농주체와 여성주체를 겸했고, 또 다른 반 정도가 겸하지 않았었는데 겸했을 때와 겸하지 않았을 때 여성주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발언력 차이는 상당했다. 농활을 총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농주체의 발언력과 영향력이 큰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주체의 발언력은 오히려 '여성'주체라는 이유로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 단과대들이 있었다. 오히려 반감을 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단대 차원에서 여성주체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합의 하고 농활을 진행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단대에서는 이러한 합의과정은 표면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2008년 여성주체들은 여성주체의 중요성강조,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약 2가지 제안을 앞으로 이 글을 읽을 학생들에게 드리고자 한다.

1. 농주체를 두 명 세운다. 이 두 명의 역할은 농주체+여성주체.

: 사실, 한 단과대를 농주체 혼자 총괄하는 건 힘든 일이다. 준비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실무 할 것도 많고 회의 주최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주체 한 명만이 농활을 총괄하는 상황은 농주체에게만 너무 많은 짐을 던진 것이기도 했다. 이런 과도한 업무를 함께 나누고 농활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여성주의적인 농활을 고민할 또 다른 농주체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농주체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농주체 @@@입니다, 이번 농활대에서 농활대 회계 및 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등으로 소개하면 혼란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제안을 한 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2. 단위에서는 '성평등' 주체, '여성농민' 주체가 되자.

: '여성'주체는 이제 너무 쓸데없는 반감을 만들어낸다. 그 존재의 가치조차 논의되는 상황 아닌가? 사실 '성평등'보다 더 좋은 주체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쫄현!) 여성만을 위한 주체가 여성주체인 것도 아니고, 여성농민과의 연대에 중심이 되는 주체가 여성주체인 것도

아닌 여성주체의 역할은 너무나 포괄적이면서도 불분명하다. 이는 주체의 이름이 그 역할을 명확히 못 드러내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한다. 주체의 역할과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는 이름으로 단위 이름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3. 신과대, 교육대 등 한 단위만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굳이 여성주체를 따로 세우는 것보다는 농주체가 여성주체를 겸하되 여성주체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여성주체를 할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이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지 걸리는 건, 과연 어떻게 제대로 여성주체의 역할을 인지하고 책임감있게 이행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록

1. 2008 여름농활 문과대 여성주체 평가 회의록
2. 2008 독사반농활대 여성주의 교양자료
3. 2007 연산면농활성폭력사건일지

부록 1. 2008 여름농활 문과대 여성주체 평가 회의록

2008 여름농활 문과대 여성주체 평가 회의록

참가단위 :

□ 연합 □ 5반 □ 8반 □ 11반

각 단위 평가 :

□ **반

농민학생연대활동을 가기 전에 문과대 여성주체들이 세웠던 기치에 따라 여성주의에 대한 사전 교양 1회, 농활 내 교양 2회를 마쳤다. 사전교양은 새내기들을 위주로 하였으며 반성폭력의 개념과 농활 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의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상황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때의 대응방식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고, 여성주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농활 내의 교양은 우선 첫째 날, 농활대 내의 여성주의 규약을 세우기 위해서 여성주의 교양을 했는데 반성폭력운동을 중심으로 교양하였으며, 여성주의 규약은 크게 다섯 가지(1. 여학우의 공간을 마련하며, 생리하는 여학우들에게 적절한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한다. 2. 감정노동과 보살핌노동을 한사람에게 전가하지 말자. 3. 말하기 힘든 부분은 여성주체에게 말하자. 4. 성차별적 언행을 하지 말자. 5. 작업에 있어서 여/남이 따로 할 일을 구분하지 말자. -> 정확하지는 않아요;)로 매일 평가할 때마다 이 규약을 보고 읽고 넘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여성주의 교양은 여성농민반을 열기 전에 여성농민에 대한 교양을 하였으며 이주여성문제라든가, 현재 여성농민이 처해진 현실, 예를 들면 농사일을 하지만 남성농민처럼 직입이 아니라 농부의 아내로서 가사일의 확장형, 가사일과 농사일의 이중부담에 대해서 토론해보았다.

농활기간 내에 여성주의 평가를 크게 둘로 잡을 수 있는데, 하나는 농활대 내에서의 여성주의평가와 농민과 학생간의 여성주의 평가로 잡을 수 있겠다. 농활대 내에서는 특히 가사노동과 감정노동이 한 여학우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농활 중반까지 일어났다. 그 여학우는 식사주체를 맡다가 기상주체를 맡았는데, 처음에 식사주체를 맡았던 터라 나중에 기상주체를 맡아도 식사주체의 역할을 어느 정도 계속 해오기도 하였으며, 기상주체의 일이 개인의 수면시간을 뺏는 일이며, 밤에 자는 것 외에도 낮잠 시간, 쉬는 시간에 산발적으로 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역할에 부담이 커졌다. 농활 중반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결국은 몸살이 나 이틀정도 몸져눕게 되었다. 그리고 외모주의적인 농담이 너무도 많이 오고가서 거기에 대한 자체의 필요성을 심어야 했다.

농민과 학생간의 여성주의적 평가는 마을 이장님의 언어성폭력적인 농담이 작년에 비해 스릴이 느꼈다는 점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여성주체에게 호주제, 군복무제, 군가산점제, 제복을 입으면 여성이 잘 따른다. 등의 질문 등을 던지기도 하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말하는 여성주의적 농활나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코웃음이 난다고 하기도 하셨다.(우리가 여/남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나보다.) 나중에는 한 새내기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여성이 가정 내에서 양보하는 미덕(남편이 화내도 잘 참아야)을 보여야 가정이 유지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내기에게 여성주의에 대한 공부 의지를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진지하게 이장님과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마을 잔치에서는 잔치 내내 여성농민과 남성농민의 공간이 분리되는 현상이 보였고 남성농민분들의 눈치로 노래도 별로 못 부르시기도 했다. 이모님들께서 마을잔치에 내 놓을 음식을 돕지 않게끔 하게 되어서 좋은 성과였다. (그래도 이모님들이 마을회관에 찾아오시면서 김치, 상추, 감자 등을 자꾸 갖다

주셨다.) 마을잔치 중에 그 다음날에 있을 여성농민반에 대한 홍보 및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농민에 대해 간단히 발제를 했었는데, 의미가 좋았다. 그 다음날 여성농민반을 열었는데, 이모님들을 상대로 1부-[현재]이모님들의 현재 생활 및 시간표 그리보기, 2부-[미래]이모님들이 하고 싶은 것들(오로지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만)로 나눠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이 마사지까지) 마을방송 홍보 이후 할머니들까지 오셔서 그 내용이 바뀌어야만 했다. 물론 이모님들 할머니들 많이 오셔서 여성농민반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화자지컬하고 좋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마을이 가족마을? 이라서 할머니와 이모님이 가족인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모님들이 할머니들의 눈치를 많이 보셔서 인터뷰 발표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세세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할머니반과 이모님반을 따로 나눠서 준비해야겠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농민반 중에 이모님의 언어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 내의 여성주의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대응 못한 것에 초점을 두고 침울해 하기보다는 여성주의에 대한 경험을 농활대 내에서 숙지하고 공유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 **반

사전 교양 2회와 농활기간 내에 교양 1회를 마쳤다. 사전교양 첫 회에는 자치규약의 필요성과 농활기간 내에 어떤 상황이 발생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서 토론해보았고, 여성농민에 대한 부분도 교양했는데, 특히 이주여성농민과 재생산 노동에 대해 발제를 해 농활대 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여성농민 교양이 여성농민반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고 할머니들이 함께 오셔서 준비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이어져서 애매했다. 두 번째 교양에서는 반성폭력의 한계점과 처벌주의, 피해자중심주의의 함정, 피해자와 가해자 규정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공동체 고립에 대한 문제, 공동체 내부에서 실천적으로 여성주의를 반영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다루었는데 농활 끝나기 직전에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교양은 작년에 비해 여성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넘어서 보다 무엇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을까로, 한층 더 심화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성과가 있었다.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전 농활대원이 전가하지 않고 분배를 매우 잘했다. 다만, 농활기간 초반과 후반에 일부 여학우들이 부엌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현상이 있었고 이들은 농활대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것이 평가되었다. 평가시간 마다 가사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했었는데 논의가 당위로 이어지고, 생활적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아쉬웠다. 농활 땀 후반부에는 동등하게 가사노동이 이루어졌다.

마을잔치는 작년에 비해 이모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줄어들었다. 마을 회관이 아니라 트인 공간에서 잔치를 부치기 시작했는데,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서 덜 지치고 눈에 띄기도 쉬워서 교체하기도 쉬워서 좋았다. 이모님들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을 잘 거절했다. 주체삼촌이 특히나 요리를 잘 해주시기도 하셨다. 마을잔치에서의 여/남 공간 분리를 심했다. 따라서 이모님들의 공간을 확보해야 했는데 확보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애매했다. 나름대로 이모님들을 위한 상을 차리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었다.....근데 삼촌들께서 따라 붙으셔서 좋.....(ㄹㅇ)

여성농민반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다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이모님들... 무려 스무명!!!!이나 오셔서 성과가 있었고 이모님들의 사는 이야기, 경험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 이모님들은 작년에 시집살이 등의 눈치로 못 오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오셔서 좋았다. 모든 이모님들과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남겼다. 주로 새내기들이 이번 여농반을 계기로 느낀 점이 많았다.

또한 성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농활기간에서는 논산시농민회와 연산면농민회분들이 자주 찾아오셨는데, *** 농민회분께서 새내기에게 다분히 연산면 성폭력 사건을 염두 한 말로 등을 쓰다듬으면서 성폭력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3-4일이 지난 후에야 평가시간에 공유가 되었고 판단은 바로 하지 않은 채 일단 접고 여성주체, 농대장, 해당자 셋이서 논의. 결과는 사건처리까지는 가지 않기로 했으며 공동체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중앙여성주체, 중앙농주체까지 보고가 되었다.

다음날 여성주의 교양에서 겹치는 게 많았다. 교양은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이야기를 풀기 힘들어서 마지막 즈음에 한 것. 평가시간에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좀 더 여실한 평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평가 때 원활하게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다.)

이장님께서 '예쁘다'라는 말을 자주 여학우에게 사용하시는데, 너무 끈덕지게 여학우에게 애인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시는 등의 관심을 보여주셔서 평가 때 공유를 했으나 이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다.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모임을 통해서 논의를 할 것이며 여름 농활 후속작업으로 2차 농활을 따로 3-4일 정도 가는데, 간담회나 손자보 등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며 되도록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번 농활기간 동안 주체삼촌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작년 성폭력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음을 느꼈다.

이번 중앙자료집과 문대자료집이 좋았다.

성인지 간담회는 단과대 별로 상당히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만큼만을 기획한 것 같았다. 그 전 간담회에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 전에 비해 논의가 깊지 못해 아쉬웠지만, 모이기가 쉽지 않은 다양한 단과대의 사람들과 함께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 정도의 인원이 올 수 있었던 것이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 작업배분 시에 남학우들에게 힘든 일이 전가되었다.

+ 총각, 아가씨라 부르시는 아버님이 계셨는데 발언을 정정하는 방식이 단순히 고치달라는 요구로 고정되게 되었다.(왜 명칭을 학생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이유를 설명 못함)

+ 사전 교양 때 '부부공동명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같이 농사일을 지어도 남성농민의 이름으로 명의가 올라오는데, 여성농민의 이름으로는 등록할 수 없으며 공판장에 출하해도 여성농민의 이름이라면 가격이 하락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한다. 토지를 되도록 공동명의로 하자는 교양을 하고 여농반 때 이야기를 꺼냈는데, 실제 사례로서 매우 유익했었다.

+ 부농과 소작농이 서로 떨어져 권력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농활대를 통해서 그 권력관계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완화시켰다.

+ 신임 부녀회장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기존의 이모님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쳤다.

+ 작년 마을잔치때에서는 작업분배가 잘 안되었는데 올해에는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짜게 되어서 좋았다. 전을 밖에서 준비하면서 부엌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이모님들을 위한 노래배우기 프로그램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 2차 농활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

□ **반

중간평가 때까지 교양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3월에 몰아서 교양을 진행하기 되었다. 시간표상으로 교양과 분반활동을 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사전교양 1회, 농활교양 1회가 있었고, 농활기간에서는 여성농민과 재생산 노동에 대한 주제로 문대 자료집 중에서 '멕시코 여성..NAFTA'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는데 여성주체의 강연회가 된 자리였다. 교양이 아닌 강연식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가사노동의 분배를 잘 되었다. 6-8명의 인원이라 서로 무엇을 담당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평가 시간에도 가사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해서 세세히 평가했다. 예를 들어 부엌은 닦았나, 음식물 쓰레기는? 등등 일일이 확인하고 나중에는 제화에 이른 것 같아 성과가 있었다.

마을잔치는 작년에 마을 회관에서 100M 떨어진 정자나무에서 치렀지만 올해에는 마을 회관 바로 앞에서 하게 되었고, 마을 회관(요리하는 장소)과 가깝기 때문에 이모님들이 도우려 많이 오셨다. 멀티탭을 통해서 요리하는 공간을 밖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잘 안되었다. 여/남성 농민의 공간이 분리되는 현상도 있었다.

여성농민 분반활동은 낮잠시간에 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별로였던 작년에 비해 올해 여농반은 이모님들과 매우 긴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한뼘밖에 못한 여농반이 매우 아쉬웠다. 여농반 주제는 어렸을 때의 꿈이나 하루 일과로 2시간정도로 잡았는데 분위기는 좋았고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진지한 예

기를 많이 하지는 못하였다.

마을주체님께서 밤11시~1시까지 회관에 계시면서 농활대와 술을 마셨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언어 성폭력과 물리적 성폭력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평가시간에 공유를 하고, 마을주체님께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를 했으나 농활대 전체가 이를 해결하려는 분위기를 만들기보다는 오로지 여성주체의 몫으로만 전가되기도 했다. 일정이 바빠서 말걸기도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겨우 마지막 평가MIT날 마을주체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사과를 하셨다고 한다. 허나 사과 내용은 작년일처럼 안 해줘서 고맙다는 형식. (이는 여성주의에 대한 고찰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여성주의에 반하는 이야기들은 마을주체님과 상황뿐만 아니라 여럿 있었는데, 새내기 여학우에게 짧은 바지를 입지 말라는 할아버님의 발언도 있었고, 작업시간에 한 아버님께서 TV가 여자들을 망쳤다. 남편에게 말대꾸나 한다는 식의 발언. 마을주체님은 자기 집일은 쉬우니까 여학우들이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분위기가 싸해 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평가시간에 잘 나오지 않았으며 여성주체가 얘기를 해야 그때서야 공유하는 분위기가 들어 아쉬웠다. 어쨌든 이번 농활에서는 여성주체에게 여성주의 농활에 대한 것이 전가되었고, 농활내내 반성폭력 내규, 규약이 없어서 아쉬웠다.

중앙자료집, 문대자료집 모두 좋았으며 문대의 나프타 멕시코에 대한 발제가 어려웠다.

성인지는 1시간 반정도로 짧았는데, 논의 내용은 원래 있던 단편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깊이가 없었으며 모두 술자리 성폭력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농활 첫째 날 했던 간담회는 좋았다.

+ 호주제, 군복무제에 대해서 다른 마을분이 물으셨는데 새내기들은 친해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

+ 부농과 소작농의 관계가 안 좋다.

+ 가사일, 몸상태 등을 평가시간에 다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작업배정시 좋다)

+ 환경주체에 소홀했는데, 시간표를 정리함으로써 30분만 끌어내 청소를 했는데 좋았다.

□ **반

**농활대로서 최종구성원이 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사전교양도 농활 가서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왜 페미니즘을 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다. 또한 여농반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왜 연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교양을 진행했는데, 당위로 받아들여진 점이 없잖아 있었다. 여성주의적 농활은 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작업주체와 여성주체 관계가 긴밀해야 한 부분이 아쉽다. 생리하는 여학우에 대해 작업주체가 먼저 배려해 준다는 판단으로 직접적으로 해당학우에게 이야기를 건네지도 않고 결정, 판단을 해버린 것은 안되는 일이었다. 가사주체가 따로 없었는데 중간에서야 이를 평가하고는 가사에 대한 일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농활대의 수가 적어서 대부분 가사 일은 아픈 사람이 남아서 가사 일을 했었다. 이는 정정해야 했다. 이모님들이 반찬을 많이 갖다주셨는데 감사드리기에 소홀했던 것 같다. 새내기들에게 농민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한다는 압박을 주었는데, 선행은 익숙하고 후배는 처음인이라 선후배가 함께 자리를 했어야 했다. 선후배의 공간이 분리되는 바람에 아쉬웠다. 여성주의 사전교양을 통해서 보건의 사전답사를 여성주체가 가면 좋을 것 같다. 미리 농민분들과 우리 농활대의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농민과 딸의 설정관계로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전복할 수 없었다. (후속작업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가사주체가 없었는데 남학우들이 일을 도맡아서 의식적으로 했던 점이 좋았다. 개척농활이라서 여성주의에 반한 상황이 생기면 싸한 분위기로 대처, 고민이 강구된다.

+ 마을잔치 때 여성농민께서 잔치 그릇을 치웠는데 눈치채고 거들려는 사람만 거들고 교체를 하지 못했었다. 다른 학우들은 마을 잔치 분위기에 또 신경을 써야 했으므로 각자가 서로 불만인 상태가 되기도 했었다.

+ 페미니즘 교양 시 이를 고민해 왔던 선배들 위주로 말하게 되었는데, 사전교양시에 새내기들이 이를 공부해 와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적으로 교양주체를 새내기+선배로 배정해서 새내기에게 역할을 일임하고, 또한 2-4명의 조모임식의 토론발제를 통해 모두가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

부록2. 2008년 독사반 농활대 여성주의 교양 자료

- 함께 이야기해볼 질문을 정리한 겁니다. 여성주의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나누어 보고 함께 자치 규약을 세우면서 마무리했다고 하네요.

2008년 독사반 봄농활~~

논산시 '송산리' 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이제 봄농활 첫 번째 교양을 시작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08학번 여러분과 처음 만났었던 2월의 오티 기간에 여성주의에 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느덧 연세대학교 학생으로 생활한지도 2달이 넘었네요. 그 동안 어땠는지도 이야기 해봐요.

☺ 농활에서 '여성주체' 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왜 여성주체가 있는 걸까요? 정말 있어야 하는 걸까요?

☺ 농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비로 생리대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지나치는 일상 속, 평범한 것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 이제, 우리가 지킬 것들을 세워봅시다!

독사반 '쫄대있는' 농활대에는 각자 자신만이 모습,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박 4일의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2008년 봄농활이 여기 모인 다양한 사람들 모두에게 즐겁고 언제나 다시 떠올리고 싶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 앞으로 우리는 송산리에 살고 계신 많은 농민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특히 여성농민 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농활기간동안 함께 알아봐요~

부록 3. 2007연산면성폭력사건일지

[2007년 연산면 농활 성폭력 사건일지]

1. 사건 개요

- (1) 단위 : 장전2리 철학8반 농활대
- (2) 발행일시 : 농활 8일차 7월 2일 21시
- (3) 발생장소 : 마을 회관 내부

2. 사건 내용

7월2일 아홉시 경 연산면 농민회에서 마을 회관을 방문했다. 자리를 마련하고 농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농민 한 사람이 "여기는 남학생들이(사내애들이?) 설거지를 다하네"라고 이야기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상 차려진 곳으로 가던 한 여성 대원이 웃으면서 "그럼요. 요즘은 다 같이 해요."라고 말했고 그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농민회 회장님과 고정리 마을주체인 @@@회원, 장전2리 마을 주체가 자리잡고 있던 테이블에서 @@@회원은 "입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할 말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자들이 할말 다하면 안 된다.", "가족들이 있으려면 남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진행했다. 그 때마다 "아이고 그런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등 반박하는 말을 하려 했으나, 워낙 취했기 때문인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또한 너희들이 성평등 성평등 하는데 모든일을 똑같이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 남녀의 힘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모든일을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여자가 집안일을 맡는것은 우리가 여자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의 차이를 생각해서 일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장전2리 농활대장이 "남자가 힘이 세니 빨래를 더 잘할 수도 있죠"라며 반박을 했더니 그럴것이라고 말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한 대신에 머리가 좋으니 여자는 머리 쓰는 일을 분담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욕아, 아이교육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한 여학우가 굳이 힘의 차이로 성별분업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농활작업을 여러 번 나가보았지만 웬만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그럼 남자들만큼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마을 한번 오라면서 땅파기 한번 시켜 볼테니 남자들하고 똑같은 양만큼 해보라고 말했다. 옆의 농민회 분 중 한분이 이런 말을 하신 분께 그만하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이 성평등이 아니다라고 조용히 주의를 했지만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회원은 듣지 않고 계속 큰소리로 자기주장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장전 2리 마을주체가 그 사람을 발로 찰 정도로 화를 내며 큰소리는 민폐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러다 농민회원들은 가고 @@@회원은 남게 되었다. 그리고는 혼자 거실에서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 여성 농활대원에게 "우리 딸 닮아서 수양딸 삼고 싶다"며 손을 잡았다. 몇 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했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 중간 중간에 상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딱히 빠져나올 구실이 없었고, 손을 잡고 이야기 하는 것 까지는 피해자가 별로 불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야기가 20-30분 길게 이어지고 수양딸 삼겠다는 이야기, 신상을 묻는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손을 확 당겨 본인의 허벅지 위에 얹어 놓는 것이었다. 첫 차례에는 조용히 손을 뺐으나 몇 분 뒤로 곧 다시 끌어다 허벅지 위에 얹으셨고, 계속 '아버님, 이러시지 마세요'라며 짐짓 손을 뺐다. 그러나 몇 차례 실랑이가 벌어지고 거부의를 이야기 했음에도 @@@회원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손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며 어깨를 비비는 행위, 손목의 굵은 상처를 보고 딸이 다쳐서 안쓰립다'며 뽀뽀하는 행위를 하시는 등 더욱 불쾌한 행위를 이어갔다. 상황 중간부터 여러 농

민들과 다른 대원들이 술자리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버님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셨습니
다.'며 강한 어조로 불쾌함을 말했을 때는 얼굴을 약간 굳히시며 가야겠다고 하시고는 일어났다.

그 이후 @@@회원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한 남성 농활대원에게 다가가 "아들, 고추 좀 보자" 미
손을 계속 뻗었다. 대원들은 그 정도까지 보면서 매우 불편해 했는데 나중에 올기까지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 같이 배웅을 했는데 한 여성대원을 향해 "커피를 물어야.."라
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3. 사건 직후 진행 과정

@@@ 회원이 농민회 간부라는 점, 술에 상당히 취했다는 점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었던 농활대원들이 그 때 느꼈던 성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반드시 제대로 문제제기 해야겠
다고 마음먹었다. 7월 2일 저녁 불미스런 일에 대해 평가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그 날의 논
의가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자 7월 3일 오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7월 3일 오전에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반의 농활대원들끼리 공개 토론을 하면서 공유된 상황에 어
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철학8반 농활대 차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논의와 어떤
사항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7월 3일 저녁 전까지 중앙에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
했다.

7월 3일 오후 5시 경 문과대 여성주체에서 정식으로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였고, 문과대 여성주체는
피해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고 시 중앙 여성주체에게 사건을 공유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다.

7월 3일 저녁 문과대 농주체와 여성주체, 장전2리 농활대 여성주체가 함께 학생측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꾸릴 것을 합의했다.

4. 피해자측의 요구사항

-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문구 전체를 수정 없이 원문 삽입한다.

우선 이 상황을 사건으로 생각하고 신고했던 신고자들은 @@@ 아버님의 개인적 사과를 요구합니
다. 구두로라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체 농민회의 성평등 교양을 농활사전에 확실히 마치고 농활기간내에도 계속해서 학생들과
평가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 아버님께서 농민회에서 학생과 함께하는 술자리에는
학생들이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농민회 분들이 @@@ 아버님을 제지해야함을 강조합니다.

술을 적게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혹여나 그런 행동을 보이시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항후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재발 방지가 확실히 되어
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응에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과 함께하는 술자
리에서 제외하기를 요구합니다.

농민회 차원에서 학생과의 연대를 위한 확실한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학생들과 함께 검
토, 진행하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갖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앞으로 학생과 농민간의 연대가 더 공
고해지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농민회와 학생의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토대로 함께 풀어나가기
를 바랍니다.

5. 이후의 사건 처리 과정

10.21 문대와의 논의 내용

(1) 참석인: !!!, ###, \$\$\$, 전소라, 문대농주체

(2) 주요 내용

- 기간의 요구사항이 농민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문대 학생회가 논산에 다녀옴.
- 농민회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 판단, 농활 보이콧에 대한 의견 제출.
- 피해자측 의견: 왜 처음부터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의 요구안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서 기존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단대의 여름농활 보이콧은 차악의 방안이라고 생
각한다.
- 사과문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가을 농활은 최대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

10.26일 피해자 측 회의록

(1) 문대 여성주체를 비대위에 넣자, 그랬을 때 더 책임감있게 연결할 수 있음

(2) 비대위구성원에 있어서

- 현재 정해진 것은 총학생회 1인(우주), 피해자측 대리인 1인, 그 외, 농민회 측 약 두 명 정
도
- > 새로 꾸려지는 비대위에서 결정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3) 학내 공개에 대해서

- 각 단대에 협조를 요청한 뒤 문대에서 한 것처럼 여성주체, 농대장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 사
건 공유 질의응답
- 일차적으로 자료 부착

(4) 농활에 있어서 여성주의

- 주체들의 소양부족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더디게 되었다면, 앞으로의 농활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 -> 비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혹은 참여가 전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교양을 해야 함.

(5) 대리인 문제

- 지금 ###와 &&& !!!는 ○○○를 추천 ** 생각을 듣고, 같이 얘기해 볼 시간이 필요함. ->월요일까
지는 봅시다

(6) 새로운 비대위를 다음주 초까지는 발족해야 함.

10.26 문대 주체측 회의 내용

(1) 우선 사건 공유는 농활 끝나고 나서 농주체 모임을 통해 이루어 줘야므로 문서 를 읽고 질문
사항 받음 (사건경과 문대 여성주체가 대략적으로 정리발언)

<사건경과>

7월 3일 사건 접수/ 저녁 비대위 꾸릴 것 합의

7월 4일 비대위 구성 (문대 농주체, 여성주체, 논산과 연산의 회장과 총무)

요구안 - 개인 회원 분의 사과, 가해자 교육/ 농민회 차원의 사과문, 공개사과/ 농민회 차원

교양 프로그램

7월 15일 연산면 월례회의 당시 성폭력 관련 교양 시행

-> 질문사항 없음

(2) 철학8반 피해자측 대리인이 간단히 문서 내용 발제

: 학내 공유 방안(자보+ 단대주체모임), 새로운 비대위 구성원(총여1인, 피해자측 대리인1인, 문대측 1인, 농민회 측 약 2인/자문위원 성폭력 상담실), 앞으로의 농활에서의 여성주의(여성주체 교양, 농주체 교양 등).

(3) 가을 농활 보류에 대하여

사건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을 농활을 가는 것이 옳은가/ 농주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 논의

-> 반에 들어가서 농활대원 간 사건을 공유한 뒤 다시 만나기로 함

피해자 측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비밀비제한 농활에 다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농활을 봤을 때 신뢰 기반을 잃는다고보다 더 두렵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판단, 이번 가을 농활 보류를 통해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학생 측의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함을 전달함. 또한, 만약 농민회 측에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가을 농활 보류는 그 때까지로 설정하고 있음. 단순히 이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농활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건 처리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이에 대한 농민회 측의 무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류함을 재확인. 전체적인 농민회와 마을의 소통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4) 각 반의 상황

쓰시오: 이미 9명 조직-가야할 듯 함/ 마을 자체가 농민회에 대한 반감이 강함

독사: 조직 중이었으나 그 기간에 엠티를 잠음

불꽃오반: 조직은 아직 하지 않음/ 사건 공유 이후 판단

비상구: 언어적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음/가지 않겠다는 반응 대다수

철팔: 가을농활보류로 일단 합의

3반+11반: 조직까지는 하지 않음 / 공유자리 있을 후 판단

=> 화요일 오전 8시 2차 모임 가지기로 함.

10.28 피해자측 회의록

(1) 대리인 문제

○○○가 수요일에 담해주겠다고 함. 만약 ○○○가 안되면 을 해까지는 ###가 담당하기로 일단 합의

(2) 대리인을 다시 세우는 데에 문서화 필수적

사소한 것이라도 문서화 하자

(3) 문대 주체 모임 내용 공유

: 9반 주의깊게 봐야 할 필요 있음. 월요일에 반 모임있을 때 다른 농대원 설득하기 힘들다고 판단

할 경우, 대리인과 문대측에서 도와주자(\$\$\$세한테 문자함 그런데 연락이 없음)

내부용 문서로 좀 더 내용 보완하자.-> 문서 작성함

(4)총여학생회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지지자보, 중운위원 조직, 비대위 활동 지지, 단대주체모임에 함께 할 것

(!!가 김국에서 논의하기로 했음)

(5) 농민회 측에서 새로운 비대위 안 받을 확률 거의 없음

-> 만약 안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때 다시 논의

(6) 가을농활 보류일이 적을 경우

: 최대한 농주체, 반회장, 여성주체를 조직하는 수밖에 없음. 만약 그래도 가는 반이 있다면 가을농활 때 그 반에서 간담회 진행(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이번 성폭력 사건에서 왜 가을농활보류이야기가 나왔는가 등등)

10월 30일 문대주체회의

(1)참여자: 문대 농주체/여성주체, 10반 농주체(정혜원), 2반 농주체 (김슬아), 8반 농주체/여성주체, 독사반, 5반농주체, 3+11반 농주체

(2) 각 반 상황 공유

9반(미참석): 현실적으로 못 갈듯/ 공유작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좀 더 논의 필요

=> 현실적으로 못감

10반: 가을농활보류가 과연 농민들에게 얼마나 각성이 될 것인가/ 조직이 잘 된 상황

=>가을농활 간다.

독4:선배는 공유, 후배 약 2명 아직 공유 될 되었음/ 선배측은 가을농활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후배측은 가을농활이라도 가고싶다.

=> 현실적으로 못 감

2반: 현 상황에서 보류가 옳다고 생각. 그러나 다들 마을에 가고 싶어함. 혼란스러움

=>보류하게 되면, 보류하겠음(앞으로의 농활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한울(미참석): 늦게 연락이 되어 상황공유 아직 못함

=>원래 일정상 못감

5반: 모두 공유되었음/ 5반 내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 것인가(성폭력 개념 자체의 존재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인식->1월 중 성폭력 대처와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감수성을 키우기로 함)/ 실제로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농담과 혼계조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입장을 포기하고 가는것이다. 다른 방식의 대처가 필요함공유)/ 나이주의 어떻게 철폐하나/성폭력 대처 교양, 처리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으면한다(문대에 제안), 문제 해결과정에서 결론이 농활오는 학생들한테나 맞춰주자가 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가을농활 보류

3+11반: 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대위의 사건 처리 역량과 농민회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농활에서의 여성주의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보류 의 방식이 과연 적합한가. 재교육이 어렵다는 현 상황에 있어서 무턱대고 보류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다. 여성주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확률이 크다. -> 팔반은 모르겠지만 다른 반들은 농활을 가서 사건에 대해 농민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원래 안감(보류가 과연 최선 혹은 차악의 방식인지 논의해보자)

(3) 그 외 논의 내용

-농민회와의 연대가 아니라 농민과의 연대까지 생각해 봤을 때 보류가 타당한가.

- 독사반: 지금 이 기간의 보류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단순히 농활이 농민회와의 연대만이 아니지

- 않은가. 해가 지나면 반의 구성원이 바뀌는데 조금 더 많은 학우들과 농활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고민된다.
- 농민회측 반응: 사건해결 의지를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실천적 부분은 두고 봐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알겠다. 최대한 요구안을 듣겠다는 입장이었다(문대농주체)
 - 이번 가을 농활 갈 때는 문대 중앙에서도 내려간다(다른 주체분들과의 논의도 있음)
 - > 가는 단위에는 간담회를 진행하자.
 - 농민회 측의 사건해결 의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 새로운 비대위구성에 참여를 하는 것, 피해자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가지가 일차적인 판단요소가 될 듯 하다. 그 이후는 사실상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 2반: 달같이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 사건으로 인해 다른 단위와 마음이 잃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원칙과 감정사이에서 혼란스럽다.(문대여성주체 정리)
 - 5반에서 3+11반에게: 그분 들의 상황상 여성주의를 알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성폭력이 과연 '농촌'에서 그 특수성으로 인해 더 빈번히 일어나는가. 농촌과 학생사회(도시)를 구분하는 것이 유의미한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더 자주 일어나지 않느냐
 - 5반에서 2반에게: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으려면 문제의 원인을 농민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얻을 게 없을지 모른다.->이번 기회(보류)를 현재 우리 내부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계기로 삼아보자.

(4)결론

가을 농활 보류에 대해 다양한 결론이 나왔다.
문대가 원칙상 전체적으로 보류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사건에 있어서 보류하는 것이 옳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30일 문대주체회의 내용 피해자측 전달 요지>

10반이 갑니다. 3+11반에서는 가을농활보류에 회의적입니다. 과연 아예 안가는 것이 옳나라는 이야기였는데, 우선 제가 가을농활보류는 '학생측의 사건해결의지 가시화'와 '농민회측의 실천적 의지 확산'이 최대 목적으로, 아예 안간다고 보다는 이를 위한 차악의 전략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듯(3+11반과), 결국 10반이 가니 간담회 진행을 해야 할 듯 합니다. 5반 반응 좋습니다. 4반과 2반 대체적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2반 같은 경우 '피해'를 입는다는 단어를 써서 제가 의의를 제기했고, 의현이가 한 번 더 말하자 문대 \$\$\$씨가 단어 사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해서 다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 문대 주체와의 논의내용
비대위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함
- > 비판받은 비대위원이 또 함께 한다는점
- > 개인적인 사정(중운위원)상 하기 힘들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제안을 못 받아들일것이라고 해서 제가
- > 농민회가 최악의 경우 연락을 피할 때 필요하다
- > 중간에서 문대가 연결하는 경우 전에 있었던 소통의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 > 사실상 계속 농활을 준비해 온 한총련의 발언력이 필요하다
- 는 점을 피력했구요. 정 \$\$\$씨가 못한다면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경험 있고 소양 있는 대리인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이에 문대에서는 이번 주말에 비대위차원에서 논산을 가본 후에 결정을 하라고 했구요. 승낙했습니다.

10.31 피해자 측 회의 내용

(1) 문대주체 모임관련해서

-3+11반과 다시 논의를 할 필요성이있다.

- 1)농민회와 농민을 구분해서 사건해결을 하면 안된다. 그렇다면 고철과 철팔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사건처리가 안된다하더라도 우리는 가해자와 만나는게 아니라 고철 학우들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것이나?
- 2) 성폭력 사건처리, 연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한 개인과의 불화로 치환하는 것 같다.

(2) 사건개요

- 수정할 부분이 생김

남자와 여자의 힘의 차이에 대한 성폭력 발언에 대해 이야기. 땅파기 이야기는 @@@ 회원이 한 발언이 아니다.

-> 농민회 측과 만났을 때 정정하면 될 듯.

(3) 비대위원으로 문대에 제안

- 문대에서 거부

이유) 1. 비판받은 기존 비대위에서 새로운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2. 임연히 말해 \$\$\$에게 제안하는 것이라면, !!씨가 피해자측 대리인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나도 개인적인 사정(언급한 부분은 우선 중선관위있음) 때문에 못한다.
3. \$\$\$이 편하다고 \$\$\$에게만 농민회가 말하려 할 수도 있다.

!!의 반박) 1. 농민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중앙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발언력이 임연히 다르다.

2. 중선관위 관련해서는 피해자측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을 합의 한 상태

3. 농민회가 비대위에서 말하지 않고 \$\$\$씨에게만 말하려 한다면, 그건

정식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부분이다.

: !!가 너무 예뻐서 말했다. 기존의 이유인 문대학생회 및 중앙이 더 이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으니 이를 계속해서 방지할 수단으로 비대위 구성원에 들어오도록 했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야 한다. 정 안된다면, 문대에서 자격이 되는 이를 추천하던가, 한총련 중앙에서 자격이 되는 이를 추천해서라도 비대위를 함께 꾸려야 한다.

<<1. 사건해결을 담당해야만 하고, 이를 책임지고 가져가야 했던 문대 학생회 및 중앙에서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졌을 때 자신들이 말아야 하는 책임을 발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 수 없다면 문대 학생회 혹은 중앙에서 대신할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3. 새로운 대리인을 세울 경우 인수인계가 확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 이 내용으로 !!가 \$\$\$씨에게 메일보내기로 함.

(4) 피해자측 대리인

- o o o o 안됨

누가 가능한가?

: ###는 피해자로 농민회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과연 여성주의적 소양을 갖고, 성폭력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일부라도 있으며 피해자 측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 총여 측 1인으로 함께 하기로 했던 '우주'에게 제안해 보자

-> !!) 우주는 바쁘다. 중선관위에 말하기 대회준비, 여휴자료집 준비 그리고 선거 기간에 총여의 다른 잡다한 일들을 다 맡아야 한다.

- > 일주일에 1회 정도만 만남이 보장되면 가능하다.
- > !!가 대리인이었을 때도 바빴고, 일정이 잘 안 맞는 건 여전하다. 이걸 ○○○였어도 마찬가지 이다. 조정을 하면 된다.
- >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법도 있다.
- !!) 이번 주말에 농민회와 문대가 만나는 자리에 피해자 측 대리인이 내려가기로 했다. 그런데 우주는 이번 주말에 내려갈 수 없다.
- > 일정을 바꾸거나, 만약에 중앙과 농민회의 일정상 이번주밤에 안된다면 ###가 가도록 하겠다.

 <11월 1일 기존 비대위 활동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입장문>

철학 8반 농활대 성폭력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입장

수신: 철학8반 농활대 성폭력 사건처리 비상대책 위원회

발신: 철학8반 농활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일동

- (1) 비대위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 (2)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앞으로의 대응- 성폭력 사건 경위
 - 성폭력 사건 경위
 - [첨부1]성폭력 사건 경위 및 피해자 측 첫 번째 요구안
 - 비대위의 사건 처리 과정
 - [첨부2]비대위 측의 메일내용
 - [첨부3]피해자 측의 두 번째 요구안
 - [첨부4]사과문 초안

(1) 비대위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1. 비대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측 대리인이 먼저 연락을 취하고서야 어떤 상황인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리인이라는 위치를 둘 다 갖고 있는 상황 상 비대위에 대리인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대신 문대 여성주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기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문대 여성주체를 통하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가 원활히 되지 않아 피해자 측의 답답함이 심했다. 이는 비대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사건처리가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조속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원래는 8월말까지, 가해자 교육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조금 더 늦게까지 받기로 했던 사과문작성은 10월 19일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10월19일해야 비로소 사과문 초안을 넘겨받았으나, 피해자 측이 요구한 사과문의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았고,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 가해자가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서술조차 없음이 사과문에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이렇게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해 비대위 측에서는 '연산면 주변에 교육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말만 했을 뿐,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농민회 측 비대위원의 상황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과문이 늦어진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집단이 흔히 취하는 책임회피 방식이다. 성폭력 사건은 다른 중요한 사건에 비해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사과문을 비롯하여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책임 회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을 비대위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사건처리 중간에 대리인이 수차례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 초안을 보내면서도 '논산총무가 교육을 간다는 이유로 사건처리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는 부분을 보면 이에 대한 반성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3. 비대위 구성원의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소양에 문제를 제기한다.

: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 이유로는 비대위 구성원들이 반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무엇이 우선이 되는지에 대한 소양이 없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비대위원 중 연세대학교 농활대 구성원으로 비대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엄연히 말해서 농민회와 피해자 간의 의견을 조율한다기 보다 피해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연산면에서 이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해해 달라는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조속히 진행해 보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가 시작되고 세달 반동안 7월에 단 한번 농민회와 직접 접촉했다. 게다가 최근에 직접 내려가 접촉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차단해달라고 대리인에게 요구했다. 나중에 이를 정정하고 사과하긴 했으나 이 사건을 지금까지 말아서 처리하고 있었던 담당자가 농민회와의 만남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고 다른 주체가 참여함에 있어서 아예 피해자측이 작성한 새 요구안을 전달하지 않고 왔다. 혹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내려갈 수 있으나 요구안을 전달해야 함과 이 사건의 처리 내용을 명확히 인지시켰어야 했을 것이다.이 요구안 역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비대위가 다시 내려갈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피해자 측이 먼저 비대위에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피해자측은 이번엔 농민회와 만난 이유가 성폭력 사건 진행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산면이 농활대를 안 받겠다는 말을 하자 이를 처리하러 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요구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농민회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 점, 성폭력 사건 처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 점 등은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있어서 비대위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앞으로의 대응방식

1.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것이다.

: 지금까지의 사건 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현재의 비대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즉 피해자들의 요구안이 관철되고 이가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비대위를 새로 꾸리기를 결의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비대위

에서는 지금까지 비대위 모임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만났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여 새로운 비대위가 꾸러지는 대로 이를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비대위의 책임이 묻히는 것은 아니다. 농민회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데에 있어서 특히 농민회 측이 새로운 비대위의 대리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할 경우, 현 비대위원들은 접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사건을 학내에 공개할 것이다.

: 피해자 측이 사과문을 받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과문을 통해 각 농활대의 여성주체들과 사건과 어떤 식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었는지를 공유함으로써 사건에 대해서 언급 없이 넘어가지 않고, 농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기 위함이 있었다. 그러나 사과문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벌써 10월 말이 되었다. 대부분의 반에서는 11월 중순이면 학생회 선거가 있고, 이는 각 단대의 학생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선거를 겪고 나면 여성주체가 바뀔 수도 있고, 올 해 농활에 참여했던 농활대원들이 반에 자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11월 첫째 주까지는 이가 공유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새로운 비대위가 결성된다 하더라도, 농민회 측의 반응과 현재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교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문이 11월 첫째 주까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학내에 자보화하고 문서를 통해 문대 각 반의 여성주체들과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3. 사건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학내에 공개할 것이다.

: 농민학생연대활동은 학내의 연중행사 중 대표적인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10박 11일간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활동이다. 그렇게 중요한 행사에 있어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의 처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다. 이는 농활에 갈, 농활에 갔던 학생들 모두가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비대위원들의 태도를 봤을 때, 새로운 비대위가 꾸러질 경우 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릴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처리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를 공개하는 것 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측은 사건처리과정과 그 문제점을 학내에 자보로 공개하고, 각 농활대의 여성주체들과 이를 공유할 것이다.

• [첨부1]은 앞의 일지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합니다.

[첨부2] 비대위 측 메일 내용

2007.10.11 (목) 메일내용

메일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제 밤에 일정이 좀 있어서...

농활 이후 약 한 달간은 저와 논산 총무님 모두의 약간의 부주의로 사과문에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후 몇 번의 기한을 정해 사과문을 받기로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구요.

9월 논산에서 도농민회 차원의 행사가 있어서 그걸 논산총무님 혼자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지난해 투쟁 관련해서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바빠서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중앙 농주체를 통해서 연산면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보다는 농활을 앞으로 받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사과문이 진행되지 못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문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 문과대 회장님과 문과대 농주체 중앙농주체가 논산에 내려가서 연산면 농민회 분들과 논산 총무님과 함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연산면에서 움직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기는 연산면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그냥 번지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일단 토요일 이전까지는 대리인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보다 일찍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 한 점 사과드립니다. 토요일 논산에 다녀온 이야기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0월12일 (금) 메일내용

전달 하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논산에 내려가는 제대로 논의하고 요구하신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보내드린 메일이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사족을 붙입니다.

지금 연산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피해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피해자에서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것이 저에 우려였습니다. 이런 논의를 전달 받으면서 혹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의

사건 접수에 대해 책임감등의 이유를 느끼거나 혹은 농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등의 2차 가해를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퍼진다'는 적절치 못 한 용어가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 생각하구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이렇게 메일이나

전화로 통화하게 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사고하고 언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17일 (수) 메일내용

지난 주에 알려드린 내용에 조금 다른 사실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농활을 받지 않기로 한 문제는 연산면 농민회 내부의 사정과

예전부터 연산이 문대 농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했던 부분이 함께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름 농활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내려갔던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 농활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총무님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 못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기 전날 대부분의 주체가 동아리 공연이 있고 한 상황에서 제가 요구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논의가 농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점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요구안 내용을 전달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요구안을 확실히 주체들에게 전달 인지 시키지 못 한 저의 잘못이 가장 컸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무어라 변명의 말씀을 드릴 것 없이 제가 명백히 잘못 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사과문 작성에 계속 늦어졌던 것은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한 주체분이 계속해서 이것을 미루어 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오늘까지 받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고 오늘 밤중에 오면

다시 전달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다시 중앙 주체들과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연산면과 논산시에 전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문이 오고 중앙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0월18일 (목) 메일 내용

제가 검토하고 일부 수정할 내용일 있을 듯 해서 농민회와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장은 농민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사과문이라서 공문 형식을 취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후 완성되는 형태에서 수신란에 철학 8반 농활대로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 사과문에 역시 피해자 단위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아서 이부분을 수정하고 가해사 서명과 농민회의 직인을 찍은 후 다음주 월요일에 팩스로 보내주시기로 하였습니다.(논산 총무님이 오늘 부터 2박3일 간의 교육에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계속 늦어지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일단 초안으로 들어온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3] 피해자 측 사과문 재요청

사과문을 다시 요청합니다.

전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포함하여 10월 21일까지 사과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행을 조속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민회 내부에서 이를 이행하기 힘들다면 외부단체를 통해서라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단체와 연계하기가 힘들다면, 피해자측에서 학내 성폭력 상담실이나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자문을 구해 연결하겠습니다. 혹 농민회에서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행이 가능한 외부 단체를 찾았다면, 어떤 단체인지 미리 피해자 측에 말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월 말까지 사과문이 미뤄진데 대하여, 이는 사과문을 작성하는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해자가 소속되어있는 집단에서 성폭력 사건처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7월 한 달 교육으로 끝났던 여성주의 관련교양을 최소 일주일에 한번씩, 4주에서 최대 12주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농민회 내에서 여성주의 교양프로그램을 구성하기 힘들다면 외부 단체를 통해 구성 된 계획서를 받고, 그 내용을 피해자 측에 공개한 후 내년 농활이전에 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연산면 농민회에서 성폭력사건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는 농활에서 있었

던 사건을 자보화하여 학내에 현 사건 관련 성폭력 사건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농민회를 폭로하는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첨부4]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고된 농사일과 하루하루 진행된 급박한 일정으로 인해 지금에서야 이렇게 문서를 보내게 된 점 깊이 반성을 하며 전농 논산시농민회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연세대에서 작성한 사건개요, 내용, 진행과정 서술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피해학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해 농민이 직간접인 사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직접적인 사과는 구두 사과이며 간접적인 사과는 서면사과입니다.

② 07년 가을농활 전에 농민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지회 회원에 대해서는 전여농 간부를 모시고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③ 향후 진행되는 농활 기간에는 가해 농민이 술자리뿐만 아니라 농활대원과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해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향후 농민학생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양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농학연추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성평등 농활, 성폭력 없는 농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직까지는 농민들에게 생소한 여성주의적 마인드는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 이 글에 첨부된 가해농민 사과문은 전체 일지 흐름 속에 넣기 위해 생략합니다.

<가해농민 사과문>

2007년 10월 20일

전농 논산시농민회 회장 서관식

전농 논산시농민회 연산지회 회장 정달용

사과문

저의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스러움 마음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의 행위로 농민학생연대활동에 누를 끼치게 된것을 참으로 죄송스러움과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전체적인 생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관이며 나의 술버릇 등등...

먼저 피해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농활학생들과의 술자리를 갖지 않겠습니다.

(작은 행위로 많은 불안감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동하나하나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가해자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손 때문에 진행치 못했지만 일손이 조금 정리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으나마 농민학생연대활동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글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반성이 진심임을 받아주시고 작으나마 상처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10월 20일

가해자 xxx

<연산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 준비 모임>

- 일시 : 11/3~11/4

- 장소 : 논산시 농민회 사무실

- 참가자 : 피해자 임시대리인 ###(#), 전 비대위원 문대 부회장(부),

전 비대위원 논산시 농민회 총무(총), 현 비대위원 추천자 중앙 농주체(농)

- 내용 : (자잘한 논쟁이나 담화는 빼고, 핵심 부분만 타이핑)

(1) 새로운 비대위 발족 논의에 앞서

총- 우선 정식으로 사과하겠다. 사건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데에는 나 개인의 불찰도 크고 농민회 차원에서 신경쓰지 못한 게 크다. 논산시 회장님도 무척 미안해하고 있다. 혹시 정식 사과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시 사과하겠다.

(2) 지금까지의 오해에 대한 질의

#- 연산면에서 농활 안받겠다고 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성폭력 사건과의 연관은?

총-성폭력 사건과 관계가 없진 않다. 6년 전에 논산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그 때 사건이 있었던 마을은 일부러 학생들을 2년 동안 안보냈다. 그건 일종의 패널티였는데 당시 농민회원이자 그 사건을 알고 있던 현 연산면 회장님이 그걸 기억하고 농활 안받겠다고 한 것이다. 농활 안받겠다고 한

나온 보다 큰 이유는 연산면 자체가 조직이 잘 안되는 어려움 때문이다.

#- 그러나 말이 나온 시기가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총-그렇다.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는 말 못한다. 하지만 논산시 회장과 중앙이 해결 의지가 있는 한 연산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3) 가해자 사과문에 대하여

#-가해자 사과문이 너무 불충분했고 우리가 요구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았다.

총-미안하다. 초안이 부족하다고 나도 생각한다. 개인적 사정으로 가해자 형님과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냥 받아쓰게 할 수는 없었으므로 성폭력이 뭔지부터 알려주면서 시작해야 하는데 나도 형님도 바빠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총-(이어서)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형님은 술이 너무 취해서 그 때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나는 사과문에 이 내용도 솔직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지의 의견은 다른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당시의 행동이 글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거짓된 게 아닌가?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변의 정황, 목격자, 진술서가 있으므로 얼마든지 본인이 인정할 수 있다. 우리가 본인의 행위가 사과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그 행위가 '술을 빙자한' 게 아닌, 본인의 행동이었다는 걸 정확히 주지시키기 위해서다. 혹시 가해자 본인이 기억 안난다고, 나는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했다는 사실'을 인정시키는 게 먼저다.

총-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알았다. 그럼 사과문에 행위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날짜가 너무 늦어졌다.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

총-미안하다. 11/24일까지 2차 사과문 보내겠다.

(4) 단체 교육프로그램

총-12주 교육프로그램은 농민 현실상 무리다. 노동자와 농민은 다르다. 하우스 작업에는 농한기가 없어서 1주일 1회씩 계속 쉬는 걸 요구하는 건 봄 수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교육프로그램 필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 얼마나 꾸준히 이루어지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전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응은 어떠했는지 알려달라.

총-민노당 여성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 향후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도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집 보여줌) 별로 관심 없는 분야라서인지 반응은 그저 그랬다. 하지만 꾸준히 시도할 것이다.

#-꾸준히 해야 한다는 부분은 서로 일치하는 것 같은데..그럼 총무님이 생각하는 교육프로그램 대안은 무엇? 피해자측은 농민측/학생측 모두 정기적인 교양 실시와 사건 처리 실무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해 여름 농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그 해 3월부터라도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총-1년 단위로 바라보는 게 적당하다. 우선 여름에는 농활이 있으니 매년 1회씩은 교양을 진행한다. 이걸 봄농활 전에 1회, 여름농활 전에 2회, 가을농활 전에 1회..이렇게 짜는 것은 어떤가? 시 차원, 면 차원에서 같이. 여성위원회와 전여농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피해자측 모임에서 검토해 보겠다. 꾸준함과 장기적 교육이 첫번째이므로 우리도 교육횟수 자체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총무님이 말한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 단, 교양 끝난 이후 브리핑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총-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 달라. 민노당 여성위원회도 능력이 있다.

현-못미더워서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요구의 일부이다. 실제로 지난 교육 때는 어떤 내용이었는데 대한 공유조차 받지 못했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농민회와 여성위원회가 하되, 내용을 공유 받고 거기에 첨가하거나 관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총-좋다. 그럼 농주체나 문대학생회를 통해 의견 전하면 그 내용을 프로그램 짤 때 반영하겠다.

(5)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

총-논산 근처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의전화에도 연락해 봤지만 다 거절했다. 여기로 상담하러 직접 올 수도 없고, 거기로 간다고 해도 이런 제보는 처음이라 난감하다고 피했다.

부-가해자 프로그램을 피해자측에서 직접 한다고 했었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직접 짜는 건 무리다. 이런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며 계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사과문 내용이 부실했던 건 가해자 개별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성위원회에 부탁해 볼 수는 없겠는가?

총-부탁은 할 수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이라기보다 개인상담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면 가능하다.

#-현재 가해자에게 내려진 후속조치는 어떻게?

총-농민회 제명 얘기가 나왔으나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농민회는 학생으로 치면 학생회다. 제명이 도움이 될 리 없고 해서 앞으로 동쪽 자리를 뺐고 앞으로 마을에 농활대가 와도 학생들과 아예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6) 덧붙여

총-솔직히 말하면 한꺼번에 확 바뀌리라고 기대하지는 말아달라. 나도 학생 출신으로 농민이 된 사람으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많이 해왔다. 서로 이해할 측면은 이해하면서 서서히 바뀌어나가자.

#-논산시 농민회장 이름으로 온 공문에서 '여성주의적 마인드 강요는 말아 달라'는 문구가 있다. 거슬린다. 문구 삭제하거나 바꿔 달라.

총-알았다. 어쨌든 공문이니 삭제하고 새로 보내겠다. 11/11 노농대회라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지금 걸린 게 많아서 아슬아슬한 상태.

#-만일 구속되었을 경우 비대위 활동을 계속 해 주실 수 있는 추천인이 있는가?

총-현재로선 없다. 내가 구속되지 말아야지...(* 노대회때 구속 안 됐음)

<결정사항 정리>

1. 새로운 비대위 농민회에서 받아들임.(구성원 : 우주, 농민회 총무, 오원주)

2. 2차 사과문은 11/24일까지.

3. 교육프로그램 횟수 조절은 재검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대학생회를 통해 피해자측에서 관여 가능.

4.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을 떠안을 수 있는 단체가 없었음. 당 여성위원회에 개인상담 형태로 부탁.(2차 사과문 내용을 통해 확인요망)

11월 6일 논의 내용

(1)참여자 : !!, **, &&&, 우주 / 논의 시간 : 5시반~6시반

(2)논의할 내용으로는

- 지난 활동까지의 공유
 - 피해자측 요구사항 확인
 - 새로운 비대위 구성
- 이 있었습니다.

(3)피해자측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1) 새로운 비대위 구성

농민회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원주씨가 중앙 농주체 대표로 다음 비대위부터 참석합니다.

이로써 피해자측 대리인 지와, 중앙농주체 오원주씨, 농민회 대표와, 농민회 1인으로 총무가 참석합니다.

(아. 농민회 대표로 회장이 참석하는 것 맞았나요)

2) 가해자의 사과문

가해자측에서 12월 24일까지의 기한을 말했으나,

농민회 총무가 현재 구속될만한 상황이 있고, 때문에 12월 11일까지 사과문을 받았으면 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가해자 교육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았는데요, 사과문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하여 반성폭력 교양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봅시다.

3) 논산시 농민회 반성폭력 교양 프로그램

저번 주말에 있었던 비대위 회의에서 농민회의 현실여건상 봄, 여름, 가을로 4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받겠다. 준비는 전국여성농민회와 민노당여성위원회에서 함께 한다. 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측의 관여가 가능하구요. 이에 저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4) 다음 교양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데 까지 기간을 너무 오래두면 반성폭력 교양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우려를 서로 동의했구요. 여름 농활을 준비할 때 두번, 그 전에 두번 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5) 프로그램 내용에 피해자측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처음 반성폭력 교양 프로그램의 개요를 미리 전달받아 보고, 그 내용 안에 농활에 있어서 성폭력 사건의 발생과 처리에 대해 글로써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6) 다음 회의에서는

-> 이번 농활 성폭력 사건과 비대위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폭로

-> 학내에서 이를 공유함으로써 농활 에서 반드시 필요한 반성폭력 교양에 대해 단대/과/반 단위로 이야기해나갈 장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농활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활동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18 회의 내용

(1)참가자 : !!, **, &&&, ###

(2)자보에 대하여

1) 사건 개요에 대한 공개 (1/3) :

- 언어성폭력 사건의 경우, 발언과 맥락을 공개할 필요 있음. 그러나 신체 접촉 성폭력의 경우, 접촉의 내용 자체를 적나라하게 공개할 수는 없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계속 강행' 정도의 표현으로 대체.

- 사건의 정확한 명명은 '연산면 농민회 성폭력 사건'

2) 사건 진행 과정 비판,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설명 (1/3) :

- 가해자 사과문, 교육 프로그램에 구체적이 풀려 없이 120일 넘도록 질질 끌린 점.
- 문대 학생회가 책임감 있게 비대위 활동 하지 못했다.(예를 1-2개 정도 구체적으로)
- 새 비대위 발족, 문대 여성주체들과 간담회, 대부분 문체의식 동의하여 가을농활 보류.

3) 공문화의 목적과,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안 (1/3) :

- 사건의 공문화 /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 (이 사건이 공동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안됨)
- 제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농민회를 향한 선언)
- 성평등 농활, 반성폭력 농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들(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교양, 사건 처리 실무 능력 인지)

- 자보 초안을 화요일까지 우주가 세 줄 것, 나머지 사람들이 당일날 협검토, 비대위원인 원주씨와 우주가 자보 부착 담당해주오.

(3) 가해자 사과문에 더 필요한 내용

- 이미 전에 회의했으므로, 그 때의 요구 그대로, 우주가 논산시 농민회에 요구서를 재전달.

(4) 논산시 농민회 반성폭력 교양

- 08년 여름농활 전까지 한 달 1회 교양 기준.
- 총4회.
- 최소한 08년 1월 말까지는 첫 교양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 교양 프로그램 내용을 비대위에서 검토, 피해자측에도 전달
- 프로그램을 12/31일까지 제출
- 피해자들이 프로그램 검토할 때, 참가할 부분 있으면 그 때 요구

(5) 비대위 해소 요건에 대한 우리의 요구

- 제대로된 사과문 / 제대로된 교육 프로그램 계획표 나오면 해소 가능
- 사건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고, 문서화할 것
- 농활 시에 적용될 수 있는 농민회-학생회 용 반성폭력 규약이 있어야 함을 요구할 것

(6) 다음 회의 날짜

- 25일 일요일, 시간은 문자로 추후 합의.

11월 26일 회의록

(1) 자보 글 검토 (밀줄 전 부분이 수정할 내용)

(핵심 문장을 각 문단에, 진하게 표시할 것)

이번 여름 연세대 농활 중 발생한 <연산면 농민회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일동은 본 자보를 통해 학생 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적합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또한 이 사건을 학내에 공개함으로써 앞으로의 농활을 준비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반성폭력 교양과 그 준비와 실천에 학내 구성원과 농민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7월2일 늦은 아홉시경 연산면 농민회에서 철학 8반 농활대 일동이 있는 마을 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해자는 농활대원들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계속해서 시도하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

가해자는 “입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할 말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자들이 할 말 다하면 안 된다.”, “가족들이 있으려면 남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또한 “너희들이 성평등, 성평등 하는데 모든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또 다른 가해자, 앞의 세 문장에 대한 발언을 한 가해자와 분리할 필요가 있음)며 생물학적 성별 구분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진행해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던 중 농민회원 한분이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큰소리로 같은 발언을 하였고, 장전 2리 마을주체분이 (그 상황이 내용에 화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제지하였으므로 표현을 바꿀 것. 이 부분에 대한 지칭은 ‘다른 농민회원분’으로) 화를 내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주고 나서야 가해자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제지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후 농민회원 중 가해자만 남은 상황에서 가해자는 여성 농활대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계속하여 강행하였고, 피해자가 제차 명확한 거부의를 밝히자 당황해 하며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발생, 시간차를 정확히 넣을 것)또한 다른 (발생한 시점: 가해자가 자기를 뜨기 직전) 여성 농활대원과 남성 농활대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언급

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하였다.(남성농활대원에게 신체적 성폭력 또한 발생했음)

피해자 일동은 가해자가 농민회 간부였으며, 술자리였음에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으나 당시의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반드시 문제제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당일 저녁 본 성폭력 사건을 철학 8반 농활대 평가회의에서 공개, 다음날 오전 공개토론을 하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논의를 통해 철학 8반 농활대의 문제제기와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들이 정리되었고, 피해자 일동은 같은날 오후 문과대 여성주체에게 정식으로 본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같은 날, 문과대 농활 주체와 여성 주체, 장전 2리 농활대 여성주체가 함께 학생측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꾸릴 것을 합의하였다. 피해자 일동은 가해자에게(다른 언어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음) 자신의 성폭력 가해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농민회 차원의 반성폭력 교양이 필요하며, 그 계획에 따라 농활 전에 필요한 내용을 마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 오지 않을 것과 주변에서 가해자를 제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비대위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비대위(사건에 대한 전체 비대위, 논산시 총무까지 함께한)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측 대표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서야 어떤 상황인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비대위의 논의에서 8월말까지 피해자 일동이 받기로 한 사과문은 10월 중순에야 그 초안을 넘겨받았으며,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가해자 상담의 과정이 일체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비대위에서는 ‘연산면 주변에 교육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말만 했을 뿐,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농민회 측 비대위원의 상황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과문이 늦어진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에 피해자 일동이 사건 처리 과정과 그 내용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논의의 진행에 대해 피해자 일동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농민회와의 논의가 본 사건을 지금까지 말아서 처리하고 있었던 담당자(문대 여성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비대위와 관련없는 일인으로 수정)가 참여하면서 피해자측의 요구안을 전달하지 않고, 더 이상 농활을 받지 않겠다는 농민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 온 점은 본 성폭력 사건을 처리해야 할 학생 측 비대위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점 : 피해자 일동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재촉해야 알려졌으며, 오히려 사건을 수습하려 함, 피해자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책임 방기, 사건 처리가 아닌, 오히려 농민회와 피해자 일동 사이를 중재하려 함, 비대위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이렇게 요구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농민회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 점, 성폭력 사건 처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 점 등은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있어서 비대위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비대위는 가해자 사과문과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농민회 전체 반성폭력 교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120일 동안 비대위 활동을 방기했으며, 비대위의 구성원이었던 문대 학생회는 책임감 있게 비대위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일동은 현재의 비대위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측 대리인 일인과 중앙 농주체, 농민회 일인으로 새로운 학생 측 비대위를 꾸렸으며, 문대 여성주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본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여 이야기하고, 대부분이 본 비대위의 활동과 아직까지 본 사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확실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가을 농활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제 피해자 일동은 새로이 조직된 비대위를 통해 가해자의 사과문과 농민회의 반성폭력 교양에 대한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한 논의, 가해자 반성폭력 교양 진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해나갈 것이다.

본 사건은 농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필요한 대응 과정과 조치가 학생 측도, 농민회 측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만큼 농활 안에서 반성폭력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농민과 학생간의 연대는 그 활동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 농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양이 필요하며 사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자치규약까지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야 연세대 농활에서 농민과 학생간의 연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11. 22.(나가는 날짜로 변경)
연산면 농민회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일동

- 웹으로 자보의 수정을 검토, 화요일 내에 붙일 수 있도록
- 중간크기의 자보 2장으로 구성, 증도, 학관, 문, 상, 이, 공, 신, 사, 법에 우주와 오원주가 붙일 것.

• 수정되어 공개된 자보는 일지 끝에 별첨합니다.

(2) 농활 시에 적용될 수 있는 농민회-학생회 용 반성폭력 규약이 있어야 함을 요구할 것 에 대한 논의
: 비대위는 문과대와 중앙 농주체, 농민회의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의 논의까지 진행.

(3) 다음 전체 비대위 회의에서 피해자 일동이 요구할 것 확인
제대로된 사과문 / 제대로된 교육 프로그램 계획표

- 1) 가해자 사과문에 더 필요한 내용 : 논산시 농민회에 요구서를 재전달.
: 문서 확인할 것. !!가 다시 올려줘요.
 - 2) 논산시 농민회 반성폭력 교양
 - 08년 여름농활 전까지 한 달 1회 교양 기준,
 - 총4회,
 - 최소한 08년 1월 말까지는 첫 교양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 교양 프로그램 내용을 비대위에서 검토, 피해자측에도 전달
 - 프로그램을 12/31일까지 제출
- 피해자들이 프로그램 검토할 때, 참가할 부분 있으면 그 때 요구

(4) 비대위 해소 요건에 대한 우리의 요구(확인)
- 사건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고, 문서화할 것
- 농활 시에 적용될 수 있는 농민회-학생회 용 반성폭력 규약이 있어야 함을 요구할 것

(5) 다음 회의
• 자보 내용 검토, 웹으로 각 상황에 대한 공유 후 논의할 내용에 대해 12월 초 중으로.

(6) 오원주씨 비대위 참여 관련하여
- \$\$\$씨 말하기를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오원주씨는 그때 나와 이야기하면서, 대강 알고 있었다.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겠다. 라고 했으니 \$\$\$씨가 다시 확정을 말해줄 것을 당부.
- 문서는 나의 개인 이메일과 오원주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 기한은 이번주.
- 그 전에 나와 오원주씨의 만남이 있을 듯. 자보를 붙이기 전에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오원주씨가 학생 측 비대위의 일원임을 강조할 예정.

(7) 가해자 사과문과 관련하여
- \$\$\$의 메일로 오지 않음.
- 문의 전화 할게요.

(8) 전체 비대위 회의 관련하여
- 12월 초 중으로 잡을 것.

12/3 네번째 회의

(1) 참가자 : **, !!, ###, 우주

(2) 논의내용

- 1) 가해자 사과문
 -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사과문이 왔다고 판단
 - 술자리에 오지 않겠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 (피해자 일동의 요구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요구였음, 술자리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지 않고, 가해자 상담과 논산시 반성폭력 교양에 적극적으로 해달라. 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 2) 피해자 요구안
 - 반성폭력 교양 이수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에 진행하던 봄, 여름 농활전 2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가을까지로 1회에 한해 기간이 넘어가는 것은 가능하도록.
 - 프로그램은 12월 말까지 받기로, 이후 추가할 부분 검토 후 전달.
- 3) 농민회 - 학생 간 반성폭력 규약
 -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에 대한 결의로 마무리하면 될 듯.
- 4) 비대위 회의
 - 12월 10일 이후로 잡을 것
- 5) 공개 자보
 - 오늘이네요. 오원주씨와 만나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 공유하고(\$\$\$씨의 이월이 안이뤄지고 있네요. 오늘 진술서와 가해자 사과문, 논산시의 공문, 사건 공개 자보, 피해자 일동의 요구안 보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보 같이 보고, 뽑아서 붙이기로.

12/10 비대위 회의록

(1)참석자 : 논산시 농민회 총무 박계영, 피해자측 대리인 노조선희, 중앙농주체 오원주
논의 시간 : 3시~ 4시 반

(2) 피해자 일동의 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요구안 진행

- 1) 가해자 사과문
 - 피해자 일동은 사과문을 통해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사과한다고 판단, 11월 30일자로 보낸 가해자의 사과문을 수용한다.
- 2) 가해자 상담교육
 - 1월 중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과 한차례 진행될 예정

3) 논산시 농민회 반성폭력 교양 진행

- ① 시기
 - 총 3시간의 반성폭력 교양 프로그램을 기간을 달리하여 두 차례 진행함으로써 최대한 다수의 농민회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 총 2회의 교양 프로그램을 2차례 진행한다.
 - 시기는 봄 농활 전과 여름 농활 전으로 하며, 각각의 교양 시간은 1시간 반을 최소시간으로 한다.
- ② 내용
 - 위의 시기에 맞추어 효과적인 반성폭력 교양의 진행이 가능한 단위, 강사를 섭외한다.
 - 반성폭력 교양 프로그램의 대강을 피해자 일동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 피해자 일동은 반성폭력 교양 프로그램의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필요한 내용을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행

- 반성폭력 교양 프로그램의 내용을 준비하는 단위와의 협의, 연락, 진행과 강사 초빙은 농민회 총무가 그 역할을 맡으며, 이후 비대위원의 연락을 통해 반성폭력 교양 프로그램의 대강을 받을 날짜를 확정하도록 한다.

4) 농민회 - 학생 간 반성폭력 규약 제정

- 비대위원 모두는 농민회 - 학생 간 반성폭력 규약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농활 안에서의 반성폭력 담론의 확장과 성평등한 농활 만들기의 노력과 함께 농민회 - 학생 간 반성폭력 규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비대위의 해소

- 비대위 회의와 그에 따른 진행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정리, 피해자 일동의 요구안 이행이 이뤄진 이후 해소한다.

3월 29일 반성폭력 교양프로그램 검토 내용

(1) 내용

1) 2회 차 교재 내용 관련

반성폭력에 대한 설명과 이해들이 한꺼번에 모두 나열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반성폭력 교양은 <농활에서의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가감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51p 성평등한 농활 만들기를 주 주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15. 민주노동당의 성폭력 해결방안과

[자료3] 성폭력 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중 '운동집단 성폭력'에서부터

[자료7] 이전까지의 자료는

본 교양의 특수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③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피고인>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난해한 부분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영화가 아닌 다른 매체의 활용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④ 성폭행을 당한다. 라는 개념은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자'의 고정된 위치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지칭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자료22] 피해자의 눈으로 성폭력 바라보기와 내용이 연결 되네요.

⑤ 가부장제, 성적자기결정권 등 용어의 사용에 있어 최대한 다가가기 쉬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⑥ 교재 첫 부분의

◆ 웃을 아하게 입는 여성은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X)

◆ 남성의 성욕은 참기가 어렵다. (X)

◆ 성폭력은 여성의 과다노출이나 잘못된 행실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X)

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2) 농민회- 학생 간 반성폭력 교양 내용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에 <농활에서의 성폭력 사건 예방과 대처>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더욱 강화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 교육자료

보내주신 교육자료는 합숙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전반적으로 토론과 세미나식의 발제문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반성폭력 교양은 농활에서의 성폭력 사건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임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고, 이후 농활을 진행하면서 참고해야 할 반성폭력 교양이기에, 이번 프로그램의 교육 자료가 논산시 농민회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 프로그램의 대강을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간과 주 내용의 분량 조절과 함께 교육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기와 시간

보내주신 메일을 보고,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으셨나 싶었습니다. 강연의 소요시간은 최소 3시간의 강의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되, 이 강의를 두 세트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처음 교양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다음 강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의 합의는 한번 강의에 90분을 두었습니다. 강사님의 판단 하에 시간을 더욱 늘리셔도 좋습니다. 내용 전달에 따른 시간을 고려해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농민회와 대리인이 1차 반성폭력 교양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 내용 (별첨 3 참조)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처리를 하게된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그것이 피해자측을 무시한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

한번을 하더라도 효과적인부분을 많이 고려하다보니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게으름이 이번 일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상황..

강사 : 김정희 (민주노동당 논산시위원회 여성위원장)

강의 시간 : 8시반 ~ 9시반 (1시간)

강의 장소 : 논산시농민회 사무실

참가인원 : 16명 (참가에정인원 20여명-마을주체,면연사무장,면총무,시임원..)

강의내용 :

처음에는 간략히 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주변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후 농활에서의 성폭력을 설명해주시면서 전체적인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주셨습니다.

첨부: 강의 때 ◆km◆ ppt, 당일 나눠드렸던 자료..당일 사진..

농민의 벗!

전농 논산시농민회

열리지 않는 것들이 있네요.

교육자료 ppt와

ss851794 이미지 파일손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mail 전문과 보내주신 자료는 피해자 일동과 비대위 구성원 - 중앙농주체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교육 당일 사진을 보니,

더 많은 분들이 90분 동안 참여해도 지루하지 않을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차 교양때는 시간엄수와, 대상자 확보에 대해 다시한번 결의된 사항을 지켜야 함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점은반성폭력 교양의 대상자를 농활에 참여하는 농민회 분들 전체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예상인원에 대표자들만 뽑으신것 같아서요.

큰 방해요인이 없다면 더 많은 분들이 반성폭력 교양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통화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e-mail을 통해 좀 더 확실히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농민회의 바른 사정속에서도 학생-농민회 간 농활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성폭력 교양은 기본 중에 기본이며,특히나 이번 반성폭력 교양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 우선, 의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논의과정에서 농민회의 바른 사정은 일정과 시간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며,비대

위원은 논의결과로써 결의된 사항은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비대위원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 입니다.

논산시 농민회 농활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다른 논의사항이 생겼다고 판단되신다면, 자의적인

판단에 앞서,피해자대리인인 저에게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었지만, 2차 교양 때 또다른 실수가 생기는것을 미리 방지하고 싶은 마음에 내

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럼 빠른 답메일 기다리겠습니다.

6월 18일 농민회로부터 8반 농활대를 못 받았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

갑작스럽게 밑의 내용을 통보받은 뒤 글을 올리고몇가지 추가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연산면에서 문대 전체를 안 받았다고 했고, 결국 중앙에서 설득한 결과는 철학 8반은 연산면에 들어

올 수 없다 였다고 합니다. 다른 문대 반은 들어갔다고 하고요.

문대 농주체님은 이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연산면 마을주체님과 대화 속에서) 종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장전2리로 철학반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데, 그 이후에 문대 농주체님에게 잘 될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연산면 상집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

다가완전 '깨졌고',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연산면 상집회의에서는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논산시 중앙에

서도 그렇다면 철학8반을 연산면에서 가까운 면에 재배치하거나, 다른 단위랑 합해서 들어가는 안으

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어제 전달받았고, 농주위 에서 이 내용을 구두 공유한 뒤 이에 중앙농주체, 문대농주체,

저, 이번 철학농주체인 종박, &&이 이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상황공유도 그 때 이

루어 졌구요.

적회는 지금 상황에서의 재배치를 받아들이 수 없고, 연산면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들

1. 술먹고 작업에 안나온다.

2. 마을회관이 더럽다.

3. 마을회관을 씨끄럽게 사용한다.

가 사실상 만들어진 이유라는 점들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장전2리의 마을주체님인 강건모아버님께서

는 연산면에서 이렇게 결정내린 것 자체를 그제까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농민회 측에서 거론하지 않는 한 장전2리로 가겠다는 철학 8반 및 문대 측의

근거는 저 세가지 이유에 대한 반박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연산면 마을에서 '이렇게까지 사건

처리를 해야 하나' '이게 어떻게 성폭력이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고, 연산면 상집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갖고 활가활부하기는 그른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

다.

대신, 제가 요구한 것은 만약 장전 2리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사건처리

에 대한 연산면의 신뢰가 이렇게 바닥을 친 이상 철학 8반과 문대 측은 앞으로 어떻게 연산면과 연대

해 나갈 것인지, 재배치가 된다고 하면, 이를 다른 대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결국 이유는 성폭력

사건 처리인데 이를 받아들이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대 농주체 측은 문대 농주체 회의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공유한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습

니다.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9일 장전 2리로 최대한 철학 8반은 들어가고 싶고, 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싶다

라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종박과 문대 농주체, 제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교양 전에 이를 진행하려

합니다.

농민회 사무국장님과 논의합니다.

이를 사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무국장님이

-비대위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저를 피해자측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비대위 구성원조차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있었던 교양과 19일에 있을 교양이 비대위 차원의 후속조

치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내용과 시간에 대한 논의를 비대위 측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

었습니다.

논산시 총무님은

-작년 일어서서 모르신다.

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피해자측 대리인이 아닌,

저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하려고 했던 점 역시 문제적이었습니다.

이 전화통화가 있는 뒤 우주와 통화했고

만나서 논의 한 결과, 우주가 비대위원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9일에 있을 교양은 비대위의 후속조치가 아니며 제가 한다고 해도 이는 중앙여성주체로 이행하

는 것임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논산시총무님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서 메일로 이상의 내용을 전달했고,

오전에 통화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일정대로 오늘 내려가서 간략하게 성폭력적인 상황을 예방해주십사 말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상황>

내려가서 저는 따로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그냥 학생들이 부탁드립니다.같은 절로

우리 후속조치와는 상관 없구요.

종박과 호연씨가 사무국장님과 함께 연산면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했다고 하네요.그 쪽에서 사건은 거론하지 않고 계속해서 철학농

활대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들어갈 것 같습니다.

회의소집하겠다고 하네요. 회장이 '솔직히 내가 거슬린다' 고 발언했습니다.사건은말하지 않구요. 예

구... 앞으로의 연대가 걱정되네요 중앙에서는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나마 말까.

종박에게 계속 안타까운듯이 이야기해주시고

사무국장님이나 부회장, 회장님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총무님에게 농민회 차원에서 공유해주길, 문대 농주체에게는 문대차원에서 공유하길 말했습니다. 오원 주씨가 정리하신 문서를 토대로 단대 여성주체 모임에서 공유하셨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1- 흠.. 다들 바쁜가봐용..

6월 22일 연산면으로의 농활을 거부한 것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입장

- 연산면으로의 농활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입장

: 가을 농활 때 지켜봐도 월8에서 농민회와의 연대가 없었다.

맨 처음에 제시한 이유들- 술먹고 다음 날 작업 늦게 갔다.

마을회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

마을회관을 시끄럽게 썼다.

1. 술 먹고 다음 날 작업에 늦게 가지 않았다. 작업주체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여성주체의 기억 속에서 생리통이나 다른 이유로 작업에 못 나간 적은 있지만 술을 이유로 못 나간 적은 없다.
2. 마을회관 청소 : 재작년에는 주민 분들과 함께 청소 했었고, 작년 역시 신경써서 했다. 마을 상황이 좋지 않고,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충분히 청소 했었다. 마을 주체분이 외부를 한번 보고 가셨다.
3. 마을 회관 시끄럽게 썼다: 마을 회관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은 마을주체님 덕이었다. 사전에 시끄러우면 잠들기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줄였다. 다른 집들은 마을회관과 거리가 있고, 처음 연산면에서 문대를 안 받겠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가지 이유때문이었다면 처음부터 월학 8만만 안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표면적으로 지어낸 이유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 1안) 여름 농활을 문대차원에서 보류하자.

요구사항: 장전 2리로의 배치를 거부한 데에 대해 연산면 농민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후속조치들을 통해 담보하라/ 월학 8만이 원하는 마을로 재배치

후속조치사항)

-> 중앙에서 발 걸고 나설 것이다.

->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중앙도 연산면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연산면에서 좋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냥 오지 말라고.

-> 그럼 어떻게?

-> 단대 전체농활을 보류

안 되면 이 사안에 대해 폭로작업, 자보를 붙이거나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리거나 중앙 농민회에 압박주기

최소한 문대학생회는 설득시킨다.

6월 22일 피해자측 대리인의 의견 및 농민회 전달 내용

6월 19일 늦은 저녁에 유나에게 반성폭력 2차 교양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문제는 크게 세가지였던 것 같아요.

1. 1차 반성폭력 교양 진행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2차 반성폭력 교양을 진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 학생 1인의 교양 진행. 30분의 시간 배정.

2. 피해자측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편한 지인(유나)을 통한 내용 공유와 논의.

3. 논산시 농민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농민회 간부 대부분이 비대위의 존재와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위 내용으로 논산시 총무와 이야기하고자 했고,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아 당일 메일 보냈습니다.

20일 오전에 전화 연락되었고, 학생이 와서 20분간 진행하면 좋겠다는 반성폭력 교양은 비대위의 논의 사항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별개로 유나가 20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논산시에서 문대 농활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물론이고(지금 진행되고 있죠 2.는 이야기했습니다.)

연산면 농민회 성폭력 사건과 비대위의 존재, 관련한 후속조치들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의 초안을 곧 올릴게요.

조만간 한번 모여서, 이야기나눴으면 합니다.

<첨부> 6월 19일 농민회 총무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조선희입니다.

전화연락 드렸는데, 닿지 않아서요. 메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유나를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피해자측의 입장과 학생측 중앙농주체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위원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처럼 논산시 농민회의 반성폭력 교양은 외부 감사의 진행으로 최소 90분이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이 논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대위원이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피해자측의 의견과 입장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비대위원은 논산시 농민회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것이고, 비대위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된 사항을 모두 이행할 때 해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을 반성폭력 교양의 강사로 세우고, 교양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여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반성폭력 교양 날짜의 하루 전에 통보해오신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추후 비대위원의 논의를 통해 본 사항에 대한 비대위가 진행해야 할 활동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비대위의 활동을 논산시 농민회의 주요 간부들을 비롯, 농민회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측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채 비대위의 활동을 논의한 점은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유나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비대위의 활동으로서가 아닌, 학생측 여성주체로서 반성폭력 교양의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논산시 농민회 성폭력 사건에 비대위가 구성되고, 비대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바는 농민회 총무님께서 논산시 농민회를 통해 학생측 중앙농주체는 연세대 내에서 농활 반성폭력에 대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비대위의 위상을 낮추고, 비대위원의 책임을 묵살하는 언행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비대위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피해자측 대리인인 저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중으로 비대위의 추후 논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해요. 여름 농활이 다가옵니다. 무더운 날씨와 시작된 장마에 아무쪼록 즐거운 농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조선희 드림.

(5월 3일 농민회와 피해자측 대리인의 메일 교환 내용)

[별첨] 1. 논산시 농민회의 약속

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꾸려진 비대위는 가해자 사과문과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농민회 전체 반성폭력 교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120여일 동안 그 활동을 방기했으며, 비대위의 구성원이었던 문대 학생회는 책임감 있게 비대위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피해자 일당은 학생 측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수차례 제기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그 심각성을 느끼고, 피해자 측 대리인 일인과 중앙 농주체로 학생 측 비대위를 다시 꾸렸으며, 문대 여성주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본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였다. 그 자리에서 구성원 대부분은 아직까지 본 사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확실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함께 하여, 가을 농활을 보류하였다. 이제 피해자 일당은 새로이 조직된 학생 측 비대위를 통해 가해자 사과문, 농민회의 반성폭력 교양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요구사항과 농민회-학생 간의 반성폭력 규약의 필요성을 전달해나갈 것이다.

본 사건은 학생 측, 농민회 측 모두에게 농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필요한 대응 과정과 조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농활 안에서 반성폭력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농민과 학생간의 연대는 단순히 그 활동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 농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양이 필요하며 사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약까지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야 연세대 농활에서 농민과 학생간의 진정한 연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12. 6.

연산면 농민회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일당

별첨3. 1차 반성폭력 교양 핸드아웃 내용

농활이란?

농활은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줄임말입니다.

연대?

연대란 단어에 대해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연대 (連帶) 【명사】 【~하다|자동사】

1.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

¶ ~하여 서명하다.

2. 서로 연결함.

¶ 국제적 ~를 강화해 나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언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일, 이것이 연대라고 하네요?

왜 연대를 해야 할까요?

왜 농민과 학생이 연대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농민과 학생이 이 사회의 공동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문제는 이 사회와, 그 구성원인 대학생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농업시장 개방의 문제는 농민들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의 식량 자급률, 식량주권(안보)

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FTA 반대와 한반도 평화통일과 같은 사안은 농민과 학생, 공동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촌의 구성원인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사회 구성원인 학생들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농민학생 연대활동, 농활입니다.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농민과 농촌을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삶, 그 자체인 농사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농사를 알아야 하고, 농사를 잘 알기 위해서 직접 농사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으로 농활을 가는 것입니다. 책이나, 화면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닌, 직접 손에 흙을 묻히고 눈에 발을 담글 때, 진정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일손 돕기를 넘어,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농민과 학생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농민학생 연대활동'입니다.

연대는 아름다운 것

앞서 말 했듯이 우리사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 개인이나 몇몇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집단과 집단이 연대를 통해 함께 극복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농활을 통해, 노동의 소중함과 농민들의 노고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농업개방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진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농민들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경험과 지혜를 알려주시고,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로의 처지와 상황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행동을 하는 속에서 연대는 더욱 밀접하게 진행됩니다.

연대는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1+1 =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농활을 통해 경험해왔습니다. 개개인으로 파편화되고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농민학생 연대활동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농민과 학생의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 가는 연대활동,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성평등한 농활 만들기>

◎ 성평등한 농활을 위한 생활수칙

— 각 마을에게 다음 규율을 제안합니다.

- 혼숙 절대 금지, 기본이겠죠? 성폭력은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 술자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옆자리에 앉히거나 스킨업, 술 따르는 것 강요하지 않기.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은 하지 않기. 좋은 말, 고운 말, 격려하는 말을 생활화하기
- 밤에 남녀간 개인행동은 되도록 하지 안도록 합니다.
- 일은 특별히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면 남녀 구분하지 않기.
- 월경 중인 여학생에 대한 충분한 배려.

: 농활 가서 월경을 시작하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프기는 한데 말은 못하는 등 많은 고충들이 따릅니다. 이것 때문에 피임약을 먹어 주기를 조절해야 하거나 농활 자체를 거부하는 여학생들도 많습니다. 농활대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월경 중인 여학생이 무리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거나 육체적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로 배치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다.

◎ 농활 성폭력

첫째 . 반성폭력 농활만들기...

정겨운 농활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박한 농촌이라는 이미지와 농활대에 대한 신뢰로 성폭력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농촌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사회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잘못된 성 인식,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농촌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그렇다면 농활 성폭력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농활 성폭력이라 함은 농활기간을 포함하여 농활을 수행하는 과정, 농활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예를 들면 농활 준비활동 등)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농활과 관련된 구성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농활과 관련된 구성원이라 함은, 농활을 수행하는 농활대원, 농민회, 마을농민 등을 말합니다. 즉, 농활 성폭력이라 함은 농민과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모두를 말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성폭력이라 함은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폭력 또한 성폭력이 될 수도 있지요. 흔히 하기 쉬운 외모로 평가하기, 성별 분업 고정관념 가지고 이야기하기(여자가... 남자가...) 등등도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 피해자 중심의 원칙

농활뿐만 아니라,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입니다. 강도 등의 범죄에서는 피해자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그릇된 관정들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나?'고 질책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은 그리 거창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며,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피해자 중심의 원칙은 세워집니다.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불쾌하게 느끼고 자신의 몸에 대한 침해행위로 느끼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객관'을 적용한다면, 얼마만큼 만졌는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식의 드러나는 상황만으로 물리적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데 그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그것은 피해자의 주관과 사고를 무시하는 결과만 낳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경험'으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2. 농활 성폭력이 일어나면....

농활 성폭력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피해자가 말하기 더욱 힘든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활이라는 것이 농민과 학생의 연대라는 성격을 가지고 수행되는 활동인데, 자신의 피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농민과 학생 연대에 커다란 금이 가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까하는 걱정이 되게 때문입니다. 농민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학교와 마을 사이에 인식차가 존재합니다. 또 잘못된 연대의 관점과 예의범절에 대한 강조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의 경험을 밝히기 힘든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농활대원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농활대라는 공동체는 과/학부/단대에서 일상적으로 지내오던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이므로 농활 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 신뢰의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농민과 학생이 소속된 조직내에서 성폭력 사건 접수를 사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입장을 세우지 못할 경우 그것은 진정한 연대가 아닐 것입니다. 성폭력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를 중심에 두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진짜 농민과 학생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음에 기초하여 이러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더 신뢰 있는 연대활동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 농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활대에서는..>

(1) 사전교양에서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마을 농활대 전체 교양이나 분반원 교양 등에서 반드시 교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꼭 반성폭력 지수 테스트에 있는 문항들 중 이권이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그리고 반성폭력 규율을 만들면서 토론을 진행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2) 농활 반성폭력 규율을 만듭시다.

중앙에서 아무리 규율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각 마을 농활대에서 농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없으면 농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우는 규율에 반드시 반성폭력의 내용으로 규율을 만듭시다. 농활대 자체에서 함께 고양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짧지 않은 일정을 남겨 학우가 함께 보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규율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농활 수칙을 참고하여 만들어봅시다.

(3) 각 마을 농민주체분들과 농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얘기를 진행합시다.

농활에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는 학교 내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농활대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든지, 농민분과의 결고려운 관계를 만든다는 이유로 농활에서의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활 기간 중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농활대 분위기를 위해서나 농민분들과의 원만한 만남을 위해서 성폭력을 묻어두는 것은 농민 연대의 뜻을 살리고 원활한 농활을 만들어 가는데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나, 성폭력을 다시 발생하도록 방치해두고, 도리어 피해자의 활동들을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성폭력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실을 보여주며 농활대의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농활 기간에 성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문제제기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활이 성폭력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민과 학생간의 연대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때 그 어느 공간에서보다도 성폭력에 대해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연대활동을 이루어 내기 위해 농활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럼, 진짜로 농활 성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 ① 농활대장이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농활대원들의 행동지침 참고)
- ② 피해자가 처음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피해자의 모든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반드시 빠짐없이 기억해둡니다. 피해자와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혼자 있을 때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기록해둡니다.
- ③ 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피해자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④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고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잡아(예를 들어 농활본부로 신고해서 농활본부와 농민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등) 피해자와 함께 얘기합시다.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혹여나 강압적이어서는 안됩니다.
- ⑤ 농활본부로 빠르게 신고합시다.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⑥ 농활대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다시금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유합시다.
- ⑦ 농활본부 여성농민반 주체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⑧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서는 안 됩니다.
- ⑨ 가해자는 농활본부의 도움을 받아 만남시다.
- ⑩ 농활 마을주체분과 만나서 농활 성폭력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 ⑪ '내가 피해자라면 어땠을까? 지금 어떨까?'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⑫ 피해자가 누군지 억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⑬ 혹시 피해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행동합시다.

-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믿어주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라도 여러 사람이 사건이나 감정상태 등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보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그런 데를 왜 갔니?"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마을주체는 이 정도는 신경을 써야한다.

1. 농활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다.

-작게는 대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체험으로서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해주는 것이고 크게는 현농업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함이다. 예를들어 지금의 한미FTA투쟁을 함께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서로의 합의 속에서 근로와 모든 일정이 진행이 있도록 하자.
(하루일정, 분반활동일정, 전체 10일간의 일정, 마을잔치, 마을공동사업일정 등등)
-농활전체적으로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해야할 규율을 두는것도 좋을듯..
예를들어 학생들은 너무늦게까지 술자리를 하지않는다. 농민들은 최대한 밤 11시 이전에 집으로 갈수 있도록한다. 등등...

2. 농활은 서로의 존중에서 농활이 진행되어야한다.

-학생들은 일급을 주는 일꾼이 아니다. 작은일손이나마 함께 하기위함인데 일만시켜 놓고 농민들은 다른곳에 간다든지 일만시키고 참과 식사만 잘주면되지 하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금물.

3. 농활은 마을전체의 사업이다.

-농활은 몇몇 소수의 일이 아니다. 하기에 일배치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되도록 어려운 농가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이 좋을듯하다.
-농활학생들과 함께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마을사업을 함께진행하면 좋을듯하다.

4. 이장님과 마을주체가 마을을 잘못취 농활을 진행한다면 더욱 좋을듯하다.

-예를들어 마을주체는 학생들이 잘지내나, 아프지는 않나, 문제가 있으면 꾸지람도 하고... 이장님은 주민들의 일을 받아 공평하게 일배정하고 등등..

5. 농활에서 성폭력에 대한 조심을 하자.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않된다. 한번의 성폭력의 일로 전체농활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다음에는 논산지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것이다. 마을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당부를 하는것도 좋을듯하다.
-만약에 성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마을주체나 이장님은 민농활책임자나 시농민회로 바로 연락을 취야 한다. 일의 원만한 해결과 일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

6. 농활에서 뒷말은 금물.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이장님이나 마을주체가 학생주체들과 허심하게 얘기를 해서 풀어가야 한다. 그래야 농활 이후에 말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마을에서 학생들이 돌아간후에 밭뽕과 선뽕기가 고장나있는것을 알았다면 학생주체와 통화를 해서 이후 조치를 취할수있도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한마디 말이 없고 다음부터는 농활 다시는 받지않게다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